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1168

2011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 연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 현 자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 연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alect Education Method Employing Literary Texts
-The 7th Curriculum Korean Language Textbook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 현 자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국어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 현 자

조현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재 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숙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Ⅰ.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1.3. 선행 연구 검토 ····· 4

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방언 제재 양상 ····· 8
2.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방언에 관한 이해 ····· 8
2.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방언 제재 수록 양상 ····· 12
2.2.1. 직접 제재 수록 양상 ····· 13
2.2.2. 간접 제재 수록 양상 ····· 15

Ⅲ. 방언에 대한 인식과 방언 교육 현황 ····· 40
3.1. 방언에 대한 인식 ····· 40
3.1.1.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에 대한 인식 ····· 41
3.1.2. 문학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인식 ····· 49

3.2. 방언 교육 현황 ····· 53

Ⅳ.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교과서 문학 방언의 활용 방안 ··· 59

4.1. 방언 교육의 필요성 ····· 59

4.2. 방언 교육의 방안 ····· 62

4.3. 교과서 문학 방언의 활용 방안 ····· 65

4.3.1. 지역방언 차원의 활용 방안 ····· 65

4.3.2. 사회방언 차원의 활용 방안 ····· 70

Ⅴ. 결론 ····· 79

참고문헌 ····· 81

부록 1 <국어교육으로서의 방언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 84

<표 목 차>

<표 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 8
<표 2>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교육 관련 내용 ····· 9
<표 3>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교육 관련 내용 ····· 10
<표 4> 제7차 국어과 교과서 내의 방언 교육 관련 직접 제재 수록 양상 ····· 13
<표 5>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판소리 방언 교육 제재 ····· 18
<표 6>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 방언 교육 제재 ····· 21
<표 7>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방언 교육 제재 ····· 24
<표 8>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시 방언 교육 제재 ····· 27
<표 9>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방언 교육 제재 ····· 33
<표 10>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방언 교육 제재 ····· 38
<표 11> 지역방언의 특성과 어울리는 지역 선택에 대한 응답 ····· 41
<표 12> 방언이 사용된 대화에서 지역 배경에 대한 응답 ····· 43
<표 13> 두 화자가 같은 단어를 달리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응답 ····· 45
<표 14> ‘학교’가 ‘핵교’가 되는 현상에 대한 응답 ····· 46
<표 15>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응답 ····· 48
<표 16> 사회방언에 대한 인식과 발생 요인에 대한 응답 ····· 49
<표 17> 문학작품의 대화에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응답 ····· 50
<표 18> 문학작품에서 방언 어휘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응답 ··· 51
<표 19> 시어로 적합한 언어 선택에 대한 응답 ····· 52

<표 20> 방언 교육 방법에 대한 응답 ····· 54
<표 21> 국어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별도의 참고 자료를 통해 방언 교육을 학습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 ····· 55
<표 22> 방언 제재글을 교육한 후의 인식 변화 ····· 56
<표 23> 표준어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어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응답 ····· 57
<표 24> 문학작품의 방언 어휘를 검토하여 복수표준어나 표준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응답 ····· 57
<표 25>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 60
<표 26>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교육 관련 내용 ····· 61
<표 2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 지역방언을 교육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목록 ····· 66
<표 28>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 76

ABSTRACT

A Study on Dialect Education Method Employing Literary Texts
-The 7th Curriculum Korean Language Textbook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Jo Hyeonja
Advisor : Prof. Kang Huisu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on education of dialects employing literary works published in Korean textbooks. Most of the students use the Korean textbooks based on the 7th Curriculum,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learners through shared experiences in literary works published in the textbooks.

Chapter Ⅱ examined direct materials such as expository or rhetorical writing or indirect materials such as poetry or novels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based on understanding the 7th Korean Curriculum. Even materials which are not intended to teach dialects like literary works written in dialects may have positive effect on learners.

In chapter Ⅲ, students who are learning Korean with the 7th Korean

textbooks were interviewed to identify how much they understand local or social dialects and how they perceived the effect or values of dialects in literary works with uses of a questionnaire. As well, this study analysed how dialects have been taught in Korean class.

Chapter Ⅳ discussed the necessity to teach dial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If literary works reflect society or culture of a certain period and the languages used as tools in the literary works are dialects, they can describe the society realistically or faithfully. Learners can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education on dialects in literary works.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that learners who received education of dialects have changed perception on dialects support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Therefore, this chapter analysed materials to be educated in respect to local or social dialects in literary works published in the Korean textbooks based on the 7th Curriculum. The most necessary thing for development of dialect education approaches employing literary works is to help learners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dialects as dialects of a certain area or social dialects according to situational contexts of social discourses are reflected in literary works. Then students should be instructed to use dialects according to situations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s.

In the future, the contents of dialect education will continue to be expanded. In considering directions in knowledge on Korean pursued in the 7th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nurture ability of inquiry using various texts and develop teaching-learning methods. In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literary works published in Korean textbooks based on the 7th Korean Curriculum in order to identify the possibility to use them for education of local or social dialec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present directions for future education on dialects employing literary works to be published in officially approved textbooks based on the revised Korean Curriculum.

I. 서론

1.1. 연구 목적

교육과정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 내에서 방언 교육의 위상도 방언에 대한 인식이 변했듯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방언 사용을 지양하고 표준어 교육만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방언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로 변환된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방언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어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학습자의 실제 언어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방언이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언 및 문학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문학 작품 안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정한 지역방언이 반영되는 한편, 화자나 등장인물의 사회 담화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방언들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문학 작품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활자화되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문학은 체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 감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생각과 느낌을 간접적으로 겪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권이 전혀 다른 외국 사람의 체험을,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거리가 먼 과거 사람의 체험을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하게 된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문학적 전통이 기여하는 바는 실로 지대하다.

표준어는 공용어로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며 국어 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1] 이에 비해, 방언은 의사소통을 저해하거나 오해가

생기게 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방언은, 자연스러운 구어 능력의 발달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증대시켜 의사소통에 기여하고 상황에 맞게 말하는 법을 습득하게 하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 영역에서 보았을 때 방언은 구비 문학에 나타난 조상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언어・국어지식 영역에서 보았을 때 방언은 표준어와 어휘 교육에 기여할 수 있고 국어의 음운 현상이나 국어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적인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윤천탁 2003).

2010년 현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새로이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으레 이에 맞춰 교육도 실시되어야지만, 현재의 실정은 중학교 1학년만 새로운 23종의 국어 교과의 도입과 선택으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국어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그리고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문학 방언 교육과 관련하여, 이전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검토하고,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 안에서 방언이 어떠한 형태로 수록되고 있는지와, 방언이 문학 작품에 기여하는 효과를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방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학생들의 문학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방언 교육의 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이기갑(2009:7)에서는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교육 역시 표준말에 의해서, 그리고 표준말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표준말은 그 나라의 공통어이므로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언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배우는 교과서나 교육 내용은 마땅히 표준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학습자는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때 문학 작품은 학습자가 쉽고 자연스럽게 방언을 접하게 되는 훌륭한 매개물이 된다.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방언은 그 지역의 맛과 멋을 잘 나타내며, 그 방언이 쓰이는 지역의 문화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나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방언 어휘나 표현은 그것이 사용된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해야만 그 의미나 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강영봉・곽충구・박경래 2007:248).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 쓰이는 희화화된 방언이나 표준어 중심의 교육과정에 비해 문학 텍스트에 반영된 방언은 그 글을 읽는 독자인 학습자에게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 만들기에 기여하며 전체적으로 작품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특히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이하 제7차 국어과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획일화된 통일성을 지녔다. 모든 국민이 배우는 활자화된 교과서는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국민 공통 교육과정인 7학년부터 10학년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한다.

본고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언 관련 제재를 찾아보고, 국어교육에서 방언의 긍정적인 역할과 효과를 살린 소통의 측면에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간접제재로서의 방언 자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에 의해 각 지역의 방언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 문학으로서 방언 연구를 위해 Ⅱ장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 안에서 방언이 어떠한 형태로 수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령,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된 방언 교육의 의의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방언 교육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방언 제재 수록 양상을 교육과정이 존재하거나, 방언 내용에 대한 활동으로 구성된 직접 제재와 교육과정이나, 방언 관련 학습 내용은 없지만 문학 작품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간접 제재로 나눠 살펴본다. 이때 교과서 문학 작품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고, 교과서에 수록된 각 시기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언 교육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한편, Ⅲ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인식과 국어교육으로서 문학 방언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그리고 문학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학교 교육에서의 방언 교육의 현황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학생들이 문학 작품 안에서의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함께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방언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방언 교육의 방안에 대해 제시한 후, 방언 교육 제재로 활용 가능한 문학 작품을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어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정리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방언이 문학에 주는 효과와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함께 밝히고, 교육현장에서는 방언 교육을 어떻게 지향해 나갈지에 대해 방안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

외국의 경우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을 '가시방언(Eye Dialect)' 또는 '문학방언(Literary Dialect)'라고 하여 소설, 시, 희곡 등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는 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학과 국어학의 통합적 연구에서 방언을 매개체로 하는 문학 방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상규, 2002:2; 곽현주, 2007:68에서 재인용).

방언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 국어과 교육과정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초기의

방언에 대한 연구는 표준어 교육만 강조하던 분위기였으므로 방언 사용을 배척하고 지양하였다. 그러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거쳐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기에 이르자 방언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로 변환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2000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2001년 국어교육학회에서 간행된 『국어교육학 연구 13집』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의[2]를 다루면서 방언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방언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어 교과서에서 방언 관련 제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의 논의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문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학위 논문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대시나 소설, 고전 제재의 변천 연구, 혹은 교과서 수록 제재의 변천을 저자별 혹은 종목별로 분석한 경우가 있었다.

먼저 방언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를 문학 작품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논의로는 김흥수(1989)가 있다. 작가가 문학 작품에 토속성 및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방언을 사용한 것이 많으므로 문학작품은 방언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됨을 말하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에는 박갑수(1999)와 임칠성(2001) 등이 있다. 박갑수(1999)는 방언이 지역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어와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칠성(2001)에서는 지역어 교육의 성격을 정리하고 학교교육에서 표준어에 대한 신화와 방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육 방안으로 알기, 살기, 잇기를 들었다.[3] 그러나 지역어 교육은 현실적으로 표준어 교육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표준어 교육의 바탕 위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하였다.

---

2) 김수업의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 김혜영의 「지역문학과 국어교육」, 이경업의 「지역문화와 국어교육」, 임칠성의 「지역어와 국어교육」 등이 있다.

3) '알기'는 개념적인 이해단원과 방언의 형상에 대한 이해단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언에 대한 지식내용이다. '살기'는 방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며, 실제로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언어를 가려 쓸 줄 아는 이중 언어생활의 습득을 말하며, '잇기'는 문화적 측면으로 방언문화와 방언어휘의 긍정적 계승을 말한다.

이와 달리, 지역화의 의미와 방언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한 성과에는 김대현(1999), 구현옥(2000), 임칠성(2001), 이경업(2001), 김혜영(2001) 등이 있다.

김대현(1999)은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를 지역방언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단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역의 특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구현옥(2000)도 잘못된 방언관을 새롭게 하여 방언을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방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방언 교육이 실천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본 후 방언 교육을 위한 기본 요건과 방언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임칠성(2001)은 먼저 지역어와 지역방언의 개념을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지역방언은 대체로 다른 지역 언어와의 차이를 주목하는 개념인 반면에 지역어는 지역 공동체의 의사소통이라는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설명한다. 위에서 살펴본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어교육은 표준어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는 방언 교육도 더불어 해야 한다는 것이다.[4] 김혜영(2001)에서는 지역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그동안 논의로 하였던 '잠재적 교육'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며, 지역어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여 지역어 교육이 문화 활동으로서 국어활동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언의 가치를 실제 교재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는 신희삼(2002), 윤천탁(2003), 조규태(2003) 등이 있다. 신희삼(2002)에서는 지역문화의 국어교육적 가치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언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윤천탁(2003)에서는 국어교육의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법·문학 등의 영역에서 방언의 의의를 찾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방언의 교육내용을 검토하였다. 한편 조규태(2003)에서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 각 시기별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표준

4) 이런 논의에 가세하는 차원에서 『국어교육학 연구』제13집에는 「지방 자치 시대의 지역 언어문화와 국어 교육」에 관한 소논문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어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어 교육과 방언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방언 교육을 위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방언 교육에 대한 학위논문으로는 김주선(2001)과 김아정(2003), 그리고 곽현주(2007) 등이 있다.

김주선(2001)은 방언 교육이 표준어의 한계성을 보완해 주고 국어사의 연구 자료가 되며,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한 문학 작품이 교과 내용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라도 지역을 예로 하여 문학 작품을 교육 자료로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원지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아정(2003)에서는 <혼불> 텍스트를 통해 그 민속적 가치와 문화적 요소, 그리고 방언의 양상을 살펴본 뒤 국어교육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곽현주(2007)에서는 국어 교육 과정에 나타난 표준어 교육과 방언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방언의 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었고 방언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가 커졌지만, 아직까지의 방언 교육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문학 영역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방언과 국어교육에 관한 최근 논의로는 김혜숙(2009)와 김혜영(2009)이 있는데, 김혜숙(2009)에서는 현재 국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방언의 현주소를 점검한 후,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김혜영(2009)에서는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고 있다. 즉, 현대문학에서의 방언의 문학적 효과는 '리얼리티의 심화', '토속성의 재현', '기법 층위의 분화'로 살펴보았고, 방언 교육적 방안을 '개인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 회복',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등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들은 국어교육의 지역화와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여러 면에서 모색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찾은 후 실재 국어 교과서에서 방언 교육 제재로 활용 가능한 제재를 찾아보고 방언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방언 제재 양상

2.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방언에 관한 이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학습자의 실제 언어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의 표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거나,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등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방언

은 특정한 시대나 지역적 배경을 담은 문학 작품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학습자에게 언어적 영향을 미쳐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거나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통해서도 방언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1.1.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방언 교육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방언에 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8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를 위한 [심화활동]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 가 제시되어 있다.[5]

<표 2>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교육 관련 내용

학년	영역	내 용	
8	국어 지식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기본]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고,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심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

위 표의 내용은 언어의 역사성을 아는 학습자가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언어에 대한 감각을 더욱 정련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된 것이다. 이 내용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개념 알기, 언어가 변화하는 이유 알기,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과의 관계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옛 문헌의 구절이나 어휘를 이용하여 언어가 변화함을 인식시키거나 학습자의 할아버

5) 교육부(1998),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지나 할머니가 사용하는 말을 통하여 옛말과 현재의 말 중 차이나는 것을 조사하여 비교하게 한다. 즉, [기본 활동]은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언어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활동인 데 비하여, [심화 활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옛말의 흔적을 찾게 함으로써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활동이다.

결국 이 활동은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과의 관계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방언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1.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방언 교육

방언교육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모두 방언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3>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교육 관련 내용

학년	과목	영역	내 용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	문법	(1) 언어와 국어 (나) 언어와 인간	②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	(3) 국어 가꾸기 (가) 국어 사용의 규범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위의 표를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문법'에서 방언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6)]

6)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4.《어휘》에서는 <어휘의 양상-방언>을, 대단원 8.《국어의 규범》에서 <표준어와 표준 발음-표준어와 방언>을 다루고 있다.
먼저 <어휘의 양상>의 '방언'에서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의 정의, 국어의 6대 방언권, 방언 어휘의 개념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른 학습 활동은 "여러 지역의 방언을 제시하고 그 방언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조사하고 자신이 사는 고장의 방언 중에서 표준어와 다른 것을 조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의하면 '②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인 '국어' 10 학년 〔10-국어 지식-(1)〕을 심화한 성격이 있다. 이 내용은 언어의 사회성 알기, 언어가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짐을 알기, 언어와 사회 계층의 관계 알기, 실제 언어 자료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 이해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한편, '③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10-국어 지식-(1)〕을 심화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습자가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된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문화적 차이를 유발시키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관심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어에도 문화적인 관심이 언어에 반영되어 어휘 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언어는 그 문화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실제 언어도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문법(3)-(가)국어 사용의 규범의 내용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는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된 것이다.[7]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중학교 1학년 국어부터 10학년인 고등국어(상)·(하)까지로 정했으므로, 심화선택과목의 선택 교과인 문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문열의 <영웅 시대>와 윤흥길의 <장마> 등 문학 작품을 보고 각각 어느 지방 방언인지 알아보고, 방언 어휘를 찾아 표준어로 바꿔보고 방언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활동도 있다.

다음으로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표준어와 방언'에서는 방언이 표준어와 상대적으로 지니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방언 보존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습 활동은 김영랑의 <오-매 단풍 들것네> 등의 시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만약 시를 표준어로 바꾸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시어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방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7) 이러한 점에서 이 내용은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 '국어' 5 학년 〔5-국어 지식-(4)〕, 〔5-국어 지식-(5)〕, 〔5-국어 지식-(6)〕을 심화한 성격이 있다.

2.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방언 제재 수록 양상

국어과 교육과정의 흐름에 따라 국어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인 방언 교육 내용을 담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제재, 학습활동, 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언이 사용된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주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종서 외(1997:142~177)에서는 교과서의 제재를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유무에 따라 직접적 교육내용과 간접적 교육내용으로 나누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 설정에 따라 교과서의 방언 제재를 직접 제재와 간접 제재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논의의 대상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인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국어(상)·(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교과서의 대단원의 소단원 제재글뿐만 아니라 [학습활동], [생각 넓히기], 그리고 [보충·심화] 활동에 수록된 제재글까지 다루도록 하겠다.[8)]

2.2.1. 직접 제재 수록 양상

직접적 교육내용이란 방언에 대한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방언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 위주의 텍스트와 함께 국어 교육의 활동을 유도하는 학습활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예[9)]와, 교육과

8) 7차 국어과 교과서에는 학생이 창작한 작품도 곳곳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작품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9)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6. 문법 3. 내용 나. 영역별 내용 (3) 국어가꾸기 (가) 국어사용의 규범에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라는 사항이 있으며,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4단원《어휘》- ⑵ <어휘의 양상> - 1.방언'에서 방언에 대한 명제적 지식과 함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방언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전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 것[10]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형태는 적극적으로 방언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방언 교육 관련 제재' 즉 '직접 제재'로 구분한다[11].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 중에서 방언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방언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전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접 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표 4> 제7차 국어과 교과서 내의 방언 교육 관련 직접 제재 수록 양상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장르
중학교 국어 3-1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1) 표준어와 방언	설명문
중학교 국어 1-1	5. 글의 짜임	(1) 통신 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	논설문

위의 표를 통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고등 교과서에서 직접적인 방언 교육 관련 제재는 주로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에 수록된 <표준어와 방언>은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와 관련하여 구성된 것으로 '글을 읽으며 중요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다.'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재글은 표준어와 방언이 지닌 기능과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로서,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글 속에 담긴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도표로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중심 내용 파악

10) '읽기' 영역의 단원인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2단원《중심내용 파악하기》- 소단원 (1) <표준어와 방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1) 직접 방언 제재 및 뒤에 언급한 간접 방언 제재의 개념 규정은 곽현주(2007:5~7)의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참고하여 규정하였다.

하기》라는 대단원의 목표와 관련지어 있다.

[읽기 전 활동]은 표준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방언을 조사해보는 활동으로 '할아버지, 어머니, 매우, 거울, 부추'에 대한 방언을 찾는 내용이 나온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표준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언의 다양함에 흥미를 갖게 되고 자신이 속한 지방의 사투리가 나오면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다.

<표준어와 방언>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대략 방언과 표준어의 유래 및 정의, 표준어를 규정하는 데 적용되는 계급적·시대적·지역적 조건, 표준어의 의의와 가치,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지역방언의 분류, 사회방언의 예, 국어에서의 방언의 가치,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 등이다.

또 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생각 넓히기]에서는 사투리의 특성과 의미, 그리고 특성 있는 각 지방 사투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관한 아쉬움을 드러낸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의 필자는 표준어를 사용하되, 사투리를 천시하거나 홀대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 글을 통해 방언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본문이 아닌 [생각 넓히기]에 실려 있어서 학습의 기회가 적으며, 내용에 대한 별도의 활동이 없다.

한편 방언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회방언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전달하여 직접 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재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에 수록된 <통신 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가 있다.

이 글은 컴퓨터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언어의 본질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문제제기 한 후에, 본론에서는 통신언어의 특징 ― 상대의 표정과 동작이 담기지 않거나, 음성이 담기지 않거나, 신속성이 필요하다 ― 을 들고, 통신 언어의 실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12] 이 글의 필자는 통신 언어를 컴퓨터 통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언 즉, 사회적 방언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13] 방언은 그 사회의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그 사회 안에서 원만한 의사소

12) 통신 언어의 특징에 따른 실상으로는 표정이나 동작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표현, 비속어 사용, 의태어 사용 등이 있고, 음성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음 습관이나 음운의 변동 현상이 반영되고, 정서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려는 모습이 나타남을 예로 들었다. 또한, 신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준말과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표기가 많이 사용되고, 은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통을 이루게 하지만, 그 사회를 떠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우리가 표준어를 배우는 것은 방언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인데, 통신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생각하여야 하며, 지나친 방언의 사용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듯이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어 쓰는 통신 언어는 의사 전달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등 통신 언어의 실상과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방언도 가치가 있듯 통신 언어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일상 언어생활과 통신 언어생활을 명확히 구분하여 언어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의 필자는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통신 언어 사용에 국한해 일상 언어의 규범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이 글이 논설문인 만큼 내용 파악하기나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 찾기, 글의 짜임과 관련한 내용 파악, 주제 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방언의 가치나 기능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나 글의 짜임 파악하기 등의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2.2.2. 간접 제재 수록 양상

간접적 교육내용이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방언과 관련된 학습 내용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제재를 학습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방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를 방언 교육 관련 제재로 삼은 이유는 학교 교육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에 학습 환경이나 여건 등의 비의도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때로는 비의도적인 측면이 학습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재적 교육과

13) 방언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되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통신 언어는 컴퓨터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만 사용되므로 방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 논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14] 예를 들어, 방언 문학작품과 같이 방언 교육을 의도하지 않은 제재의 경우도 무의식적으로 지역 학습자에게는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타 지역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문화의 감상 측면에서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15].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방언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간접적인 방언 교육 관련 제재' 즉 '간접 제재'로 구분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간접적인 방언 교육 관련 제재는 주로 문학 형태를 띠고 있다. 설화나 민요 등의 구비문학, 시조나 가사, 판소리 문학 등의 고전문학 작품이나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현대문학 작품까지 수록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한 지역방언이나 사회방언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의 한문 문학이나, 외국의 문학을 번역한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방언이 실현되지 않았고, 또 특수한 시대 상황이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혹은 문학 장르가 무엇이냐에 따라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16]

아래에서는 교과서 문학 작품을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문학 작품으로 나누고, 교과서에 실린 각 시기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언 교육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4) 김종서 외(1997:142~177)를 참고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한 적이 없으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고 한다.

15)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상)의 '7단원《생각하는 힘》의 소단원 (1) <장마>의 경우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중요함을 안다.', '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가진 목표중심 단원이다. 방언 교육 내용이라고는 '날개'의 용어 해설밖에 없고 학습활동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중학교 국어 1-2 6단원《문학과 독자》- 소단원 (2)에 수록된 구인환의 <숨쉬는 영정>은 6·25 전쟁과 민족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한 이산 가족의 아픔과 한을 그려낸 소설이다. 주인공인 재규와 태규는 형제로 황해도 지방이 고향이었으나, 작품에서는 황해도 방언되지 않는다. 이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작가가 주제 의식 전달을 위해서 표준어로만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2.2.2.1. 고전문학

고전문학 속에는 현재를 뛰어넘는 삶의 보편성과 진실성이 담겨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고전 작품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과 그 계승에 대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찬(2009:282)에서는 고전문학은 살아가는 이치와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계기가 되며, 우리 전통문화가 지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류수열(2009:126)은 현재 우리가 접하는 고전 기록문학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중앙화된 혹은 표준화된 형태로만 제시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는 구술문학은 근대 이전의 언어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고전문학은 태생적으로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문학이지만, 지역방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고전문학과 방언의 관계를 제대로 논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류수열(2009:133~153)은 한문소설과 한시는 방언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렵거나 논의의 가치가 미약하다고 보았으며, 시조는 기록 문학적 특징도 지니고 있으며, 관습성 강한 짧은 작품이므로 방언의 영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았다[17]. 이에 비해, 한글 고전소설에서는 서민의 언어인 방언을 사용하여 현실감을 살리면서 흥미를 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많은 방언이 사용되었다(이태영 2004:93).

아래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방언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기록 문학이나, 시조 등을 제외하고 구비 전승된 민요와 신화・전설・민담과 같은 설화나, 이를 토대로 하여 서사적 골격을 갖춘 판소리 문학 등에서 방언교육이 가능할 만한 제재를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제7차 국어과 교과서의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방언교육이 가능할 만한 제재로 전설과 같은 설화나, 설화를 토대로 하여 서사적 골격을 갖춘 판소리 문학, 구비

17) 류수열(2009:153)은 구비문학 중에서 방언의 영향이 가장 강한 것을 무가라 하였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무가 작품에서 지역방언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승된 민요 등이 있다.

1) 판소리 문학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 사설은 설화를 토대로 하여 서사적 골격을 갖추었다. 류수열(2009:134)은 설화 자체가 기층 민중의 문학인데다, 호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발생한 이후 구술로 공연되고 구전심수(口傳心授)로 전승되는 장르의 특성상 방언성이 여타의 소설 유형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판소리는 창으로 전수되고 있고 공연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으므로, 방언의 실상을 찾아보기에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제7차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판소리 사설인 <흥보가>와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이 수록되어 있다.

<표 5>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판소리 방언 교육 제재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장르
중학교 국어 2-2	3. 문학과 표현	[보충・심화 2] '흥보가'	판소리 사설
고등국어 (하)	7. 전통과 창조	(1) 춘향전	판소리계 소설

교과서에 실린 <흥보가>는 대단원의 학습목표인 '표현의 특징에 유의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와 관련한 [심화활동]으로 "<흥보가>에는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의도로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이 작품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1) "죽도록 굶었으니 매명하에 한 섬 밥 못 먹겄느냐?"

쌀 열한 섬 내어다가 동네 가마솥 모두 모아 걸어 놓고 꼬두밥 찌듯 쪄 놓고 지게 발대에 짊어지고 한 곳에 쌓아 놓으니 밥 무더기가 삼간 집채만허것다.

"아주 밥 속에 드러누워 먹을라는고만."

"아이고, 나도 그럼 영감 따라 들어가서 누워 밥 좀 먹어 볼라요."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영감, 정신 차리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배고파 죽것더니, 이젠 밥 많이 먹어 돌아가시네. 아이고, 정신 차려. 아아아!" (중략)

흥보가 둘째 통 타려 할 제, 배가 불러 노니 정신도 나고 하여 설소리를 메기는듸,

"시르르르렁 실근 당겨 주소. 에이 여후, 당기어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금은보화나 나오너라. 금은보화 나오면은 형님께 갖다 드릴란다."

"나는 안 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소그려."

"아이고, 영감. 내 잠시 잘못 생각하였쇠다.

(1)은 <박 타는 흥보>의 한 대목으로 흥보가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다.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학습활동 1]은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 많고,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도 많다. 또,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거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작품 속에서 찾아 표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의 경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그리고 빈부의 갈등과 가난의 희화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채만허것다', '먹어 볼라요', '잊었소', '생각하였쇠다' 등 대화 문장의 서술어 부분에서 전라도 방언이 구사되어 있고, 또 해당 지역의 음운 현상의 특징

인 ‘고두밥’이 ‘꼬두밥’으로 되는 어두 경음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흥부는 격심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을 대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 흥부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잠시 죽는 모습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당시 사회의 현실과 관련시켰을 때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박을 타 보니 금은보화와 쌀이 나오고, 그 쌀을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어 본다는 것은 당시 서민들의 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난을 희화화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고등국어(하)에 수록된 <춘향전>은 조선 후기의 전라도 남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그 중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작품의 절정·결말의 내용으로, 변 사또의 생일 잔치에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춘향을 구하고 이후 백년해로하였다는 대목까지이다.

비록 교과서에 실린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몽룡이나 춘향이의 한시와 같이 주로 양반층의 언어가 구사되어 있어서 서민층의 언어나 방언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암행어사 출도 이후 아전들이 혼비백산하는 부분에서 “애고 중다.”, “애고, 박 터졌네.” 긴박한 상황에 맞는 축약형 언어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특성상 비속한 서민층의 언어와 전아한 양반층의 언어가 공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기록 문학에 비해 구비 문학에는 조상들의 정서와 사상이 담겨 있는데, 조상들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데 방언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윤천탁 2003:8). 특히,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의 사설에는 방언이 그대로 나타난다. 한 지방의 방언으로 생산된 이러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지방의 정서에 공감하기 위해서도 해당 방언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민요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비문학으로 제7차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서 민요는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18]

<표 6>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 방언 교육 제재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장르
중학교 국어 1-1	1. 문학의 즐거움	[보충・심화] 자장노래 두 편	민요
중학교 국어 2-1	4. 삶과 문학	[생각 넓히기] 모내기노래	〃
중학교 국어 3-1	5. 읽기와 매체 활용	[보충・심화] 정선아리랑	〃
고등국어 (하)	5. 감동을 주는 언어	[보충・심화] 시집살이 노래	〃

위의 표를 보면 각 학년별로 민요가 한 편씩 실려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보충・심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에는 <자장노래 두 편>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충청남도 예산 지방과 강원도 고성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2) 자장노래 1(충청남도 예산 지방)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엄마 품에 폭 안겨서
칭얼칭얼 잠노래를
그쳤다가 또 하면서
쌔근쌔근 잘도 잔다.

자장노래 2(강원도 고성 지방)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선녀같이 예쁜 애기
곱게 곱게 자는 방에
괴도 개도 아니 온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샛별같이 맑은 눈에
조랑조랑 맺히어라.

18) 박관수(2008:405~425)에서는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를 검토했다. 교과서가 민요의 갈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체요의 선정과 그 이해가 올바른지, 각편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2)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지만, 충청남도 예산 지방에서 전해져 온 민요에는 '아기'라고 부르지만, 강원도 고성 지방의 민요에서는 '아기'가 '애기'로 불리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장노래 2에서는 '고양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괴'로 불리어지고 있음도 인상 깊다. '괴'는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쓰이는 방언으로, 어원과도 관련 깊은 어휘이다. 이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비문학으로서 그 지방의 방언이나 지방색이 드러나는 표현이 드러나 우리 민중의 생활과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중학교 국어 2학년 1학기 4단원 [생각 넓히기]에는 <모내기노래>가 실려 있다.

(3) **모내기노래**

어기야 어기여루 상사듸여
이 농군들 잘도 <u>허네</u>, 우리 농군들 잘도 <u>헌다</u>. (중략)

이 작품을 통해 [생각 넓히기]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왜 모내기노래를 불렀는지, 요즈음에는 모내기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내기노래'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일의 능률을 높이고 신나게 일하도록 신명을 돋우기 위해 불렀을 것이다. 즉 민요에는 민중의 정서와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5단원 [보충·심화]에는 <진도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이 실려 있다.

(4) **진도 아리랑**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웬 고갠가.
넘어올 적 넘어갈 적 눈물이로구나.

정선 아리랑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 아니더냐.
무릉도원 간데없고 산만 총총하구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 네월아 오고 가지를 마라.
아까운 이내 청춘 다 늙어 간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한국 최남단 보배섬 진도
인심이 좋아서 살기가 좋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이에 따른 활동은 "민요를 듣고 감상을 쓰거나, 민요 가사를 글로 읽을 때와 노래로 직접 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전남 진도 지방을 배경으로 한 <진도 아리랑>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빠르고 흥겨운 장단과 어우러져 신명이 나지만, <정선 아리랑>은 후렴구가 느려서 구슬프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두 민요 모두 오랫동안 구비 전승된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선 아리랑>의 경우에는 강원도 정선 지방의 아리랑으로, 올해 핀 동백꽃을 '올 동박'이라 표현하고 있다[19]. 반면 <진도 아리랑>의 경우 전라도 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전라도 방언이 많이 쓰일 것 같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에서는 방언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설화

설화는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로서 신화·전설·민담 등이 있다. 이 중

19)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로, 이때의 '동백꽃'은 강원도에서 '생강꽃'의 의미로 쓰인다.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7>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방언 교육 제재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장르
고등국어 (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용소와 며느리바위	설화 (전설)

고등국어(상)에 실린 <용소와 며느리바위>는 황해도 서부 바닷가에 있는 장연읍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방언이나 군말을 사용하여 생동감이나 현장감, 그리고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실제 구연된 설화를 채록한 것으로 서술자가 마치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그 문체상의 특징이다.

(5)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첨지네 집터 자린데, 거게서 그 영감이 인지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도와두 주지 않구, (중략)

우정(일부러) 인지 그 집을 찾어가서 목탁을 치면서 인지 시주를 해 달라고,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 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명주)**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도투마리)**를 끊어섬나를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아마)** 잘 거시기 하던 모낭이야. (중략)

그런 화석이 **상게두(아직도)** 있단 말야. (중략)

가물어두 주는 **벱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볼라구 **명지실(명주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섬낭 하니까 명지실 **몇(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모른다는)**, **그만침(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야.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경기도 방언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자루, 살구, 짓구서, 도와두, 않구, 업구, 이구, 볼라구' 등에서

‘ㅗ’가 ‘ㅜ’로 변화한 고모음화현상이나, ‘법이’가 ‘벱이’가 되는 ㅣ모음역행동화, ‘몇’이 ‘멫’이 되는 단모음화 등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휘면에서 ‘우정(일부러), 명지(명주), 도토마리(도투마리), 오마(아마), 상게두(아직도)’ 등의 방언도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지’와 같은 군소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실제로 구연된 설화를 채록했다는 특성상 이 글은 생생한 구어체로 표기되어 있고 발화의 현장감이 드러난다. 또한 설화 중에 전설이라는 특성상 전승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6)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에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애기지.

(6)은 <용소와 며느리바위>의 처음 부분이다. 대개 특수한 지역과 관련이 깊은 전설은 전해지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유대감이나 향토애를 고취시킨다. 이 작품은 용소와 며느리바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목적으로 몽금포타령이 있는 장연읍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라는 점이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정서적,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설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제는 바로 방언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이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온 가락으로 이야기해야만 대화가 되거나, 지역이 갖는 독특한 음운 현상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또한 어휘를 방언으로 써야만 어휘가 갖는 정서적 의미나 기능 때문에 의사소통이 훨씬 쉽고, 방언이 갖는 화용표지들이 억양을 가지고 다양하게 기능하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간극을 늘리기도 하고 메우기도 하면서 훨씬 재미있게 만든다(이태영 2004:92)

본디 구비문학은 지방 문학의 전형으로 방언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문학이다. 문자로 표기된 소설과 가사 등에 대립하는 구비문학의 특질의 하나가 여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비문학은 오늘날 거의 소멸될 형편이므로 문학 매

재로서의 공통어의 위치는 더욱 굳건하여진 것이라고 하겠다.[20] 표준어로 쓰인 문학작품보다 방언으로 쓰인 문학작품은 읽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집중을 하게 되고 의미를 되새기며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또한, 방언의 낯섦 때문에 작품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 볼 수 있다.

2.2.2.2. 현대문학

작가들은 작품에서 독특한 조어를 만들거나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시어를 사용하거나, 방언을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국어 규범을 어겨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소설에서 캐릭터에게 사실성을 부여하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고 토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는 예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시 영역에서도 작품 속에서 시적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문학 작품에서 방언 교육 제재로 활용 가능한 제재를 장르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시

시인이 자신의 세계관이나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와 생활문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방언을 사용한 시작품을 방언시라고 한다(김에스더 2007:17). 즉, 방언 시어의 사용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든 전체적으로 사용되었든 간에 시 전체의 분

20) 우리의 문학이 모두 공통어로써만 생산된 것이 아니며, 특히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에 있어서 그 지방의 방언이 그대로 매제가 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채취된 민요도 그 방언을 모르고는 전혀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설화도 마찬가진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의 해설은 방언이 그대로 나타난다. 완판본 춘향전인 「열녀춘향수절가」는 그 대표적인 예다. 거기에는 전라 방언이 상당하게 보인다. 이는 판소리가 근원 설화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설에 대한 한 방증이 될 것이다. - 안정희 (2001), 「1. 우리 나라의 방언과 국문학」, 『문학과 방언』, pp.15~16.

위기와 정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 표준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시인의 드러내고자 하는 생활 문화가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창영(2005:269)에서는 시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시어에는 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시인의 의식세계, 문화적 배경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인이 그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썼다는 것은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시적 정조와 독특한 의미를 그 방언 단어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 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언시 관련 교육 제재들이다.

<표 8>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시 방언 교육 제재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작가
중학교 국어 1-2	4. 시의 세계	(2)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	〃	[보충·심화]가을 소녀들	양정자
〃	〃	[보충·심화] 해	박두진
중학교 국어 2-1	1. 감상하며 읽기	(2)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	4. 삶과 문학	(1) 가정	박목월
중학교 국어 3-1	1. 시의 표현	[보충·심화]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복효근
〃	〃	[보충·심화] 봄비	이수복
〃	〃	[보충·심화] 바다와 나비	김기림
〃	4. 읽기와 토의	(1) 지사의 길, 시인의 길 <삽입시> '꽃'	이육사
〃	〃	(1) 지사의 길, 시인의 길 [학습활동] '꽃'	〃

〃	5. 읽기와 매체 활용	[보충・심화] 향수	정지용
고등국어 (상)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2) [삽입시] 그 여자네 집	김용택
〃	〃	(2) [학습활동] 잃어버린 고향[21]	학생
〃	6. 노래의 아름다움	(3) 진달래꽃	김소월
〃	〃	(4) 유리창	정지용
〃	〃	(5) 광야	이육사
〃	〃	[심화학습] 여승	백석
고등국어 (하)	4. 효과적인 표현	[보충・심화] 추억에서	박재삼
〃	6. 표현과 비평	[보충・심화] 설일	김남조

위의 표를 보면, 교과서의 소단원 본문에 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방언시가 6편 정도이고, [보충・심화]나 소단원의 삽입시, 그리고 학습활동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단원을 이해하고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여 수준에 따라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의 학교에서는 [보충・심화]학습을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업을 하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중에서도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비문학 영역은 소홀히 넘어가지만, 그나마 문학 영역 중 시와 같은 장르는 시험 범위에도 포함시키고, 수업을 하는 편이라서 방언 교육 제재로 검토하는 일이 의미 있을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시의 세계》의 학습목표는 '시의 언어가 지닌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시에 드러난 현실 상황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이다.

21) 이 시는 과거 고향의 모습과 현재 고향의 모습을 대비시킨 작품으로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비애와 상실감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원에는 김영랑, 양정자, 박두진의 작품이 실려 있다.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에서는 '새악시'가, 양정자의 <가을 소녀들>에서는 '어둑신한'이 박두진의 <해>에서는 '애띠고'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두 편의 방언시가 수록되어 있다. 1단원 소단원 본문에는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의 시와, 4단원 소단원에는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의 시에서는 '우두커니'의 시어를 교과서 각주에서는 그 의미를 '아무런 말 없이 멍하니 있는 사람'이란 뜻의 경기도 사투리라고 제시하고 있다.[22] 그리고 박목월의 시 <가정>은 1960년대를 살아가는 고달프고 힘겨운 가장의 모습을 통해, 궁핍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아버지들의 힘든 삶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다. 이 시에서 박목월은 '들깐'이라는 시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교과서 각주에서 그 의미를 '부엌 가까이 설치되어 주로 주방 용품을 보관하는 곳간'이란 뜻의 경상도 방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보충・심화]나 [학습활동], 소단원의 삽입시를 포함하여 모두 6편의 방언시가 실려 있다. 1단원에는 복효근의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과 이수복의 <봄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가 [보충・심화]의 활동으로, 4단원에서는 이육사의 <꽃>과 <청포도가>가 소단원의 삽입시와 학습활동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5단원 [보충・심화]의 정지용의 <향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해당 단원의 [보충・심화]활동에 수록되어 있다.

1단원 《시의 표현》의 학습목표는 '시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시를 감상할 수 있다.'인데, 복효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과 이수복의 시 <봄비>의 경우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을 찾아 그 특징과 효과를 파악해 보는 보충 활동이며,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심화 활동]이다. 각각의 활동으로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의 시에서는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과, 시인이 '사랑'을 무엇에 비유하고

22) 이 각주 풀이는 국어 사전의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부사)'이란 뜻과는 조금 다른데, 이는 작가에게 확인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밝힌 바를 인용.

있으며, 시인이 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시인이 '궁그는'이라는 방언 시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활동은 없었다.[23] 한편 <봄비>에서는 '벙글어질', '아지랭이'가 방언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만,[24] 교과서의 [학습활동]으로는 "'풀빛'과 '아지랭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표현 속에 담긴 말하는 이의 처지와 심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는 표현들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는 "'청무우밭'의 '무우'와 '초생달'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만,[25] 교과서의 [심화활동]에서는 '흰 나비'와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는 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앞의 시에서는 모두 방언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과서 [보충학습]의 활동에는 이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한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육사의 생애를 다룬 전기문이 수록된 4단원의 소단원 (1)에는 이육사의 시가 삽입되어 있다. 이 중에 이육사의 <꽃>에서는 '꽃맹아리'가 <청포도>에서는 '흠뿍'이라는 방언 시어가 쓰이고 있다. 혹자는 이와 같은 시어가 전체적으로 표준어에 훨씬 가깝게 쓰였기 때문에 방언시만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시들을 방언시의 범주에 넣은 것은 교과서에 표준어형의 방언이라는 각주가 달려있고,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표준어로 된 시어보다 방언형 시어가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보충・심화]에 수록된 정지용의 <향수>에서는 '지줄대는', '얼룩백이', '해설피', '성근' 등의 시어가 쓰이고 있다. 김봉국(2009:73)에서는 '해설피'와 같은 단어들이 말이나 글로 사용되었을 때 일차적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방언형을 알게됨으로써 어휘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로는

---

23) 김에스더(2007:18)는 '궁그는'이라는 방언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가 이 시어로 인해 지역 문화를 환기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친근하고 향토색 짙은 정감어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못하고, 또한 방언 시어의 사용도 한 단어에 그쳐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방언시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이 시를 방언시의 범주에 넣은 이유는 교과서에 각주로 '궁그는'은 '구르는'의 방언이라고 각주 처리되어 있고, 표준어형보다 운율감이나 향토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24) '벙글어진'은 '벌어진', '아지랭이'는 '아지랑이'로 각주 처리되어 있다.

25) 교과서 각주 처리로 '초생달'은 '초승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무우밭'은 다만 "'청무'는 무의 한 품종, 청무밭"이라고만 적혀 있어 있다.

26) 김에스더(2007:18)에서는 이 시를 방언시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국어교육에서 방언 어휘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으로 꼽고 있다.

고등국어(상)에는 1단원 박완서의 소설 <그 여자네 집>에 삽입된 김용택의 시 여자네 집>과, 같은 단원의 학습활동에 수록된 학생이 창작한 <잃어버린 고향>을 포함하여,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에는 김소월, 정지용, 이육사, 백석의 방언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그 여자네 집>에는 방언이 '하따,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이이.' 로 시에 대화 형태로 삽입되었는데, 방언들이 대화 형태로 시에 삽입되었을 경우 시가 무리 없이 읽히는 강점을 갖고 있다(장창영2005:260).

한편, 같은 단원의 [학습활동]에 실려 있는 <잃어버린 고향>은 과거 고향의 모습과 현재 고향의 모습을 대비시킨 작품으로,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비애와 상실감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이 중 시의 가장 큰 특징인 과거 고향의 회상 부분에서 '도랭이'란 방언 시어를 선택해서 고향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6단원에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즈려밟고'가, 정지용의 <유리창>에는 '백힌다', 이육사의 <광야>에서는 '어데', '나리고'가, 백석의 <여승>에서는 '가지취'[27], '어늬(어느)' '금덤판'[28] 등의 방언이 쓰이고 있다.

고등국어(하)의 4단원 [보충・심화]에는 박재삼의 <추억에서>가, 6단원 [보충・심화]에는 김남조의 <설일>이 실려 있다. 이 중 <추억에서>는 '울 엄매'와 '오명가명' 등의 경상도 방언이 쓰여서, 가난에 한이 맺힌 어머니의 애처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어머니'나 '엄마' 보다 '울 엄매'가 훨씬 정겹고 전체적인 정서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김남조의 <설일>의 '이적진'은 '이제까지'의 방언으로 쓰이고 있다.

김용직(2001:39)은 한국 현대시와 방언의 상관관계는 소설의 경우보다 더욱 밀착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개 소설은 방언을 등장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대, 배경,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다. 이에 비해 시는 모든 언어를 형태

27) '가지취'는 산나물인 취나물의 일종인데, 김영배(2002:157)에서는 백석시의 방언에 대해 논하면서 '가지취'도 방언으로 보고 있다.
28) '금덤판'은 평안도 방언으로 금점(金店)판, 금광의 일터라고 교과서에 각주 처리가 되어 있다.

나 구조를 살리는 데 동원해야 하는 데 특히, 현대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심상이라든가 운율의 기능적인 확보 여부다. 그런데 방언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에서의 방언 사용은 방언의 특성을 활용한 '친근하게 하기' 또는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독자로 하여금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곽현주 2007:70). 그러나 방언시는 방언시만이 갖는 어휘적, 의미적, 문화적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궁극적으로 방언시는 학습자에게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 있다. 특히 완성도 높은 문학 작품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그 지방 출신 학습자들은 고장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 학습자들에게도, 문화의 다양성과 문학 언어로써 방언의 뛰어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

소설 속의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재구성된 허구의 세계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는 소설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김용직(2001:35)에 의하면 소설에서 캐릭터에게 사실성을 부여하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고 토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는 예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과가 매우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소설의 경우라고 보았다. 또 그는 근대소설의 중심 과제는 인물의 묘사, 성격의 창조에 있으며 근대소설의 기본 요체는 그 사실성 추구에 있는데,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문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문은 그 성격상 해설적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성의 전제조건인 객관성이 침식되지만, 대화는 성격 부각을 위

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 또 방언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준(2004:29)에는 대화를 표준어로 쓸 때 현실감이 없으며,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방언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생활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진실해지며 방언이 사실성을 강조하게 한다고 하였다[29].

다음 표는 제7차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언소설 교육 내용 제재들이다.

<표 9>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방언 교육 제재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작가
중학교 국어 1-1	5. 삶과 갈등	(1) 소설 동의 보감	이은성
중학교 국어 1-2	2. 문학의 아름다움	(2) 소나기	황순원
〃	〃	[보충·심화] 요람기	오영수
〃	6. 문학과 독자	(1) 흰 종이 수염	하근찬
중학교 국어 2-1	4. 삶과 문학	(2) 기억 속의 들꽃	윤흥길
〃	6. 작품 속의 말하는 이	[보충·심화] 동백꽃	김유정
중학교 국어 2-2	5. 창작의 즐거움	[보충·심화] 연년생	학생
중학교 국어 3-1	3. 독서와 사회	(2)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	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6) 운수 좋은 날	현진건
〃	〃	[보충·심화] 동백꽃	김유정

29) 이태영(2004:24~25)에서 재인용.

〃	〃	[보충・심화] 오발탄	이범선
중학교 국어 3-2	1. 창조적인 문학 체험	[보충・심화] 생일 선물	박상률
고등국어 (상)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2) 그 여자네 집	박완서
〃	〃	[보충・심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1) 봄・봄	김유정
〃	7. 생각하는 힘	(1) 장마	윤흥길
〃	8. 언어와 세계	(2) 삼대	염상섭
고등국어 (하)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보충・심화] 광장	최인훈

위의 표에서 열거한 소설 작품들은 캐릭터에게 사실성을 부여하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고 토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방언 제재로 활용하여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소설 속에는 소설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한 구성요소인 배경과 관련하여 공간적 배경 및 시대적 배경도 설정된다. 표에서 언급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순 없지만, 아래에서는 공간적 배경은 다르지만 특정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담은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적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1950년대 6・25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로는 하근찬의 <흰 종이 수염>이나, 윤흥길의 <기억속의 들꽃>, 이범선의 <오발탄>, 윤흥길의 <장마>, 최인훈의 <광장> 등의 작품들이 있다.

(7) "으으……, 핵교 잘 댕기나? 어무이 말 잘 듣고?" (중략)
'아부지, 팔이 하나 없어져서 참 큰일났제. 저런! 오른쪽 팔이 없어졌구

나. 우짜다가 저랬는고이?' (중략)

"애비의 이 맘을 알고 니가 더 열심히 핵교에 댕기야지, 나 핵교 때리챠 버릴랍니더가 다 뭐꼬?? 이눔의 자식! 그게 말이라고 하는 기가?"

"아니, 참말로 카능교? 부로 카능교?" (중략)

"허, 부로 카긴 와 부로 캐. 내가 언제 거짓말하더나?" (중략)

"내일 나갈 적에 종이로 쉬염을 만들어 갖고 가야 돼. 바로 이 종이가 쉬염 만들 종이 앙이가."

-하근찬의 <흰 종이 수염>-

(8)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명선)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명선)

"엄니! 엄니!"(나)

"아아니, 요 작것이!" (엄마)

"사나새끼가 똑 지집맹키로 야들야들허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빤드기고만……." (엄마)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만에 일이라도 야한티 해꼬지 헐라거든 앙화가 무섭다는 걸 멩심허시오!" (아빠)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

(9)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 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요?" (중략)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것이 아니야요?" (중략)

그래도 아내의 살눈썹만은 전처럼 까맣고 길었다. (중략)

"그러구 이놈의 배때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거나 한 것처럼 박혀 있는 파편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이범선의 <오발탄>-

(10) "경사시런 날, 아적부텀 예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벱이니께 이만침 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덜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구락 한나 깐닥 않고 뒷전에서 귀경만 허고 있을란다!"

-윤흥길의 <장마>-

(11)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

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략)

"동무, 지금 인민 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략)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최인훈의 <광장>-

위 (7)~(11)의 예문들은 각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 중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근찬의 <흰 종이 수염>은 6·25 전쟁 이후, 경상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징용에 나가 한쪽 팔을 잃고 돌아온 아버지가 동길이를 보고 '핵교 잘 댕기나? 어무이 말 잘 듣고?' 등의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말을 할 때는 경상도 남자의 무뚝뚝한 성격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핵교', '어무이', '아부지', '애비', '쉬염' 등의 어휘와, '-고이', '-기가', '-카능교', '-캐', '-앙이가' 등의 문장의 종결 표현들도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도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소설로, 만경강 하류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만경강은 전라북도에서 시작하여 호남평야 중심부를 거쳐 황해로 흐르는 강으로, 전쟁 중에 피란민들이 인민군에 쫓겨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란을 오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을로 몰려들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야기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는 '난생 처음 들어 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중략)',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중략)',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말씨들을 들어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중략)' 등으로 각 지역에서 온 피란민들을 서술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피란 온 명선이로,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등 서울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보면, '작것', '사나새끼', '지집', '물빤드기', '멩심' 등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고, 전라도 방언의 특징인 '-허게, -헐라거든, -허시오' 등 '-허다'의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전라도 지역이라는 배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비해 이해타산적이고 탐욕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범선의 <오발탄>의 경우도 6·25 전쟁 이후 월남한 실향민 가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속눈썹'의 북한어인 '살눈썹'의 어휘가 쓰이고 있고, '-야요'의 함경도 방언의 종결어미가 쓰여서 그들이 1950년대 월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고등국어(상)에는 윤흥길의 <장마>가 고등국어(하)에는 최인훈의 <광장>이 수록되어 있다. <장마>의 경우 6·25 전쟁 이후 전라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은 전쟁으로 '나'의 집으로 피란 와서 친가 식구들과 함께 산다는 설정으로 시작한 이 작품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은 삼촌은 빨치산이고 외삼촌은 국군 소위라는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두 할머니 모두 자식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인한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위의 (10)은 가족에 대한 할머니의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경사시런, 벱이니께, 귀경만' 등에서 '전설모음화'나 'ㅣ 모음 역행동화'가 쓰이고, '-혀, -혀라, -허고' 등 '하다' 동사의 방언형 '-혀다'가 쓰이는 등 전라도 방언이 사용되어 생동감이나 사실감이 드러난다.

고등국어(하)에 실린 최인훈의 <광장>은 전쟁 이후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허구성을 비판한 소설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지식인 명준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전쟁에 참전하게 된 명준이 포로가 되고,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냐 북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북측 장교가 명준을 설득하는 장면'과 '남측 장교가 명준을 설득하는 장면'의 일부분이 각각 수록되었다. 그 중 '북측 장교가 명준을 설득하는 장면'에서는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북한이라는 현장감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6·25 전쟁의 상황과 관련지어 언급한 소설 이외에도 1920년대, 193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김유정의 <동백꽃>,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으며, 1960년대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오영수의 <요람기>가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한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작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3) 수필

다음 표는 제7차 국어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언수필 관련 방언교육 제재들이다.

<표 10>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방언 교육 제재

서명	대단원	소단원	작가
중학교 국어 2-2	1. 작가와 작품	(2)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김용택
중학교 국어 3-1	3. 독서와 사회	[보충활동] 섬마을 아이들	황용희
고등국어 (하)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	(1) 역사 앞에서	김성칠

위의 표를 보면, 7차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 수필에서 방언이 사용되는 경우는 시나 소설 등 다른 장르에 비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 방언이 사용되는 양상도 극히 적었다.

김용택의 수필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는 작품 전체에서 특별히 지역색을 드러내는 방언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부분에 오랜만에 학교에 온 창우와 다희에게 반가워하며 '창우야, 이리 와. 창우야, 나는 니가 보고 싶었는디,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데?' 라는 대화 속에 방언이 실려 있다.[30]

30) 흥미로운 점은 이 한 문장으로 방언 사용의 효과에 대해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유와 상징, (주)지학사, 꿈을 담는 틀, 교학사 등에서 나오는 교사용 자습서에서는 '사투리의 사용-향토적 분위기, 사실적 표현'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사용 자습서를 참고하여 수업하고 있으므로, 작품 전체에서 방언이 쓰인 부분은 단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방언 사용의 효과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3학년 1학기 국어 3단원 [보충활동]에 수록된 황용희의 수필에서는 정부에서 원조 물자를 받아 생활했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1960년대 전남 낙도에서의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저놈의 가시나 새끼덜, 즈그 동상 먹으라고 좀 놔두제마는 퍼묵고 있는 것 좀 봐라.' 의 대화 속에 전라도 방언이 실려 있어, 공간적 배경 혹은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성칠의 일기문인 <역사 앞에서>는 '오늘 밤에 죽는 일이 있어도 숭업지 않게 깨끗이 죽어야겠다 마음에 다짐하였다. (중략) 더욱이 만일에 돈암동서도 산비알로 피란해야 할 지경에 이른다면 아내가 혼잣손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떡할 것인가.[31]' 등에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필은 작가가 실제로 체험한 바를 기록하는 글이므로 이러한 글에서 방언 사용은, 글쓴이 나이 또래의 독자에게 추억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시절을 모르는 독자에게도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보여줄 때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1) '숭업지 않게'는 '흉없지 않게', '산비알'은 '산비탈'의 방언이다.

Ⅲ. 방언에 대한 인식과 방언 교육 현황

3.1. 방언에 대한 인식

표준어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통일된 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표준어만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방언이 갖는 우리말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 언어학에서 '방언'은 한 언어의 하위 형식으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방언'이란 용어에는 표준적인 언어 형식에서 벗어난다거나 정확하지 않다거나 올바르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김봉국 2009:67).

이러한 언어적 사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그리고 문학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22일 16일 동안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도서관 일대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중학교 2학년 학생 36명과 3학년 학생 68명 총 104명에게 실시하였다.[32] 설문지의 문항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시나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작품을 인용하였다.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지역방언의 특성과 어울리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벤다이어그램을 고르도록 하였다. 또한 대화를 예로 들어 사회방언에 대한 인식도와 발생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아래에서는 그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3.1.1.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에 대한 인식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2단원 [생각 넓히기]에는 사투리의 특성과 관련된 제

32) 동구 중앙도서관 일대는 학원가 밀집 지역으로, 동구 지역의 학생 외에도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각 지역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재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의 필자인 정목일은 사투리에는 그 지방만이 지닌 독특한 맛과 개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설문 문항(1)에서는 이 글에서 논의된 각 지방별 사투리의 특성을 보기의 예로 들어 학생들이 그 방언의 특성과 어울리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11> 지역방언의 특성과 어울리는 지역 선택에 대한 응답

문항(1-1)	지역	응답자	응답 비율
어딘지 무뚝뚝한 구석이 있으나, 속이 깊고 믿음직스러운 데가 있다. 되도록 말을 줄이고 발음도 간편하게 한다.	**경상도**	**55명**	**52.9%**
	전라도	27명	26%
	충청도	15명	14.5%
	강원도	3명	2.9%
	경기도	2명	1.9%
	제주도	1명	0.9%
	기타 : 북한	1명	0.9%
문항(1-2)	**지역**	**응답자**	**응답 비율**
친근하고 나긋나긋하다. 감칠맛이 있고 아기자기하다. 여인의 허리처럼 날렵하고 부드럽다.	**전라도**	**34명**	**32.6%**
	제주도	21명	20.2%
	충청도	14명	13.5%
	경기도	14명	13.5%
	강원도	13명	12.5%
	경상도	8명	7.7%
	기타	0명	
문항(1-3)	**지역**	**응답자**	**응답 비율**
느릿느릿하고 유연하다. 서두르지 않고 단정하다. 말씨에서부터 점잖은 인상을 받는다. 또한 편안하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준다.	**경기도**	**35명**	**33.6%**
	충청도	34명	32.7%
	강원도	12명	11.6%
	전라도	10명	9.6%
	제주도	7명	6.7%
	경상도	6명	5.8%
	기타	0명	

위의 표를 보면, 문항(1-1)의 '무뚝뚝하고, 되도록 말을 줄인다'는 특성에 대해

학생들은 경상도 방언을 절반 이상(52.9%) 선택하였다. 그러나 전라도(26%)나 충청도(14.5%)도 적지 않게 선택되었다. 한편 문항(1-2)의 '친근하고 감칠맛 난다'는 특성에 대해 학생들은 전라도(32.6%), 제주도(20.2%), 충청도(13.5%), 경기도(13.5%)를 선택하였다. 전라도가 제일 많이 선택었지만 정작 비율은 절반도 넘지 않았으며, 제주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비율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느릿느릿하고 점잖으며, 따스한 인상을 준다'는 문항(1-3)의 특성에 대해 학생들은 경기도(33.6%), 충청도(32.7%), 강원도(11.6%) 순으로 선택하였다. 충청도가 경기도와 비슷하게 선택되어지고 있고, 또 비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경기도에 비해 충청도가 덜 선택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글에서는 작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경상도 사투리는 무뚝뚝하지만 믿음직스럽고, 전라도 사투리는 감칠맛 나고 아기자기하며 부드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는 서두르지 않고 단정하며 점잖은 인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문 조사를 통해 국어 교육에서 각 지방별 지역방언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교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중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하여,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12) 동길 : "히야, 용돌이 짜식 벌써 멱감고 있대이. 학교는 그만두고 짜식 참 좋겠다."
용돌 : "동길아! 인마, 니 핵교는 안 가고, 히히히……."
동길 : "갔다 왔다, 짜식아."
용돌 : "무슨 놈의 핵교를 그렇게 빨리 갔다 오노?"
동길 : "돈 안 가져왔다고 안 쫓아 내나."
-하근찬 <흰 종이 수염>-

(13) "창우야, 이리 와. 창우야, 나는 니가 보고 싶었는디,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데?" -김용택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14)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 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요?”

“안 쓰는 것은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야요.”(중략)

그래도 아내의 살눈썹만은 전처럼 까맣고 길었다.

-이범선 <오발탄>-

<표 12> 방언이 사용된 대화에서 지역 배경에 대한 응답

문항(2-1)	지역	응답자	응답 비율
(12) 하근찬 <흰 종이 수염>	**경상도**	**47명**	45.1%
	강원도	26명	25%
	전라도	12명	11.5%
	충청도	6명	5.8%
	경상도	6명	5.8%
	제주도	5명	4.8%
	기타 : 북한	2명	2%
문항(3-1)	**지역**	**응답자**	**응답 비율**
(13) 김용택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전라도**	**45명**	**43.2%**
	충청도	25명	24.1%
	강원도	11명	10.6%
	경기도	11명	10.6%
	경상도	8명	7.7%
	제주도	4명	3.8%
	기타	0명	0%
문항(4-1)	**지역**	**응답자**	**응답 비율**
(14) 이범선 <오발탄>	**강원도**	**28명**	**26.9%**
	충청도	19명	18.3%
	기타: 북한	16명	15.4%
	경기도	13명	12.5%
	제주도	13명	12.5%
	경상도	9명	8.7%
	전라도	6명	5.7%

위의 표는 (12)-하근찬의 소설 <흰 종이 수염>, (13)-김용택의 수필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14)-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의 문학 작품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적 배경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양상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12)는 하근찬의 <흰 종이 수염>으로 6·25전쟁 직후 여름,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단원의 학습목표는 '소통 행위로서 문학의 특성을 안다.'와 '작품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위의 대화를 보고 학생들이 해당 지역을 선택하도록 한 설문 문항(2-1)의 결과를 보면 경상도(45.1%), 강원도(25%), 전라도(11.5%)로 경상도가 절반도 선택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학생들이 1학년 때 이 작품을 교육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극히 잘못된 응답을 한 것이다. 만약 작품을 교육할 때 지역적 배경이 경상도이고, 경상도 언어의 특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문항(3-1)에서 학생들이 (13)을 보고 선택한 지역을 보면 전라도(43.2%), 충청도(24.1%) 순으로, 전라도가 절반도 선택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 이 대화의 어떤 부분에서 해당 지역방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문(3-2)에 대한 결과로는 '니가, 싶었는디, 않데?' 를 56명이 선택하고, '싶었는디, 않데'를 선택한 16명, '않데'는 12명, '싶었는디'는 8명, 무응답 8명이 그 뒤를 이었다.[33]

각 지역의 말의 특징이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은 종결어미이다. 여기에서는 '~않데?'를 포함하여 선택한 84명(80.7%)이 종결어미를 통해 어느 지역의 방언임을 인식한다고 하였으나, 막상 어느 지역인지 선택한 결과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라도를 선택한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해당 지역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지역에 사는 학생일지라도 그 지역의 방언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은 '잘못 쏜 탄환'이라는 뜻으로, 전쟁 후 혼란한

33) 설문지의 예문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작품 속에서는 전쟁 후의 실향민 가족인 철호와 영호를 주인공으로 하여 시대의 궁핍상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전쟁 이후 월남한 사람들로, 여동생은 양공주가 되고,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되어 “가자!”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는 등 이들은 모두 전쟁이 낳은 1950년대의 우리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대화의 어떤 부분에서 해당 지역방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설문 문항(4-2)에 대한 응답으로는 ‘-야요’만 선택한 사람들이 60명, ‘-야요, 살눈썹’이 15명, ‘-야요, 살눈썹, 쑤시면’을 18명이, ‘쑤시면’이 1명, 무응답이 8명이었다. 즉 종결어미 ‘-야요’를 선택한 사람이 93명으로, 종결어미를 통해 방언을 인식한다는 비율이 89.4%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문항 (4-1)의 해당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은 강원도가 28명(26.9%), 충청도가 19명(18.3%)이며, 기타 의견으로 북한이 16명(15.4%)에 불과했다. 결국 학생들은 작품에서 해당 언어가 방언 어휘인지 표준어인지 인식하나, 어느 지역에 대한 방언인지 잘 알지 모른 채 학습해왔고, 이는 작품을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 심지어는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된다.

다음은 (12)에서, 용돌이와 동길이가 ‘학교’라는 단어를 달리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적도록 한 설문 문항(2-2)의 결과이다.

<표 13> 두 화자가 같은 단어를 달리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응답

응답 내용	중 2		중 3	
	응답자	응답비율	응답자	응답비율
개별 화자(사투리-표준어)가 다르기 때문에	9명	24.3%	26명	41.2%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10명	27.1%	16명	25.4%
발음이 용이하기 때문에	5명	13.5%	0명	0%
교육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0명	0%	3명	4.8%
억양상 친근하기 때문에	0명	0%	2명	3.2%
무응답	13명	35.1%	16명	25.4%

(12)의 상황은 용돌이는 학교를 그만 두었고, 동길이는 사친회비를 내지 않아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학교'를 달리 쓰고 있는 설문에 대한 의도는 '교육 수준'의 유무에 대한 것으로 용돌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동길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도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택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모두 이러한 의도에 대한 대답이 아닌 '용돌이는 사투리를 쓰고, 동길이는 표준어를 쓴다'를 가장 많이 적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생 지역과 관련하여 '고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많았다. 한편 중학교 3학년에서는 '교육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일부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만 볼 때 학생들이 과연 문학 작품을 수업할 때,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했을지에 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학교'가 '핵교'가 되는 현상은 국어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는지 묻는 설문 문항(2-3)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학교'가 '핵교'가 되는 현상에 대한 응답[34)]

응답 내용	중2	중3	합계	비율
사투리	4명	14명	18명	17.3%
지역성	5명	6명	11명	10.6%
구개음화	0명	10명	10명	9.6%
전설모음화	0명	8명	8명	7.7%
사회성	1명	3명	4명	3.9%
'ㅣ'모음 역행동화	1명	2명	3명	2.9%
향토성	1명	2명	3명	2.9%
친근감	0명	2명	2명	1.9%
혀의 길이	2명	0명	2명	1.9%
발음상 편리함	0명	1명	1명	1%
무응답	22명	20명	42명	40.3%

34)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을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하여 학생들이 직접 쓰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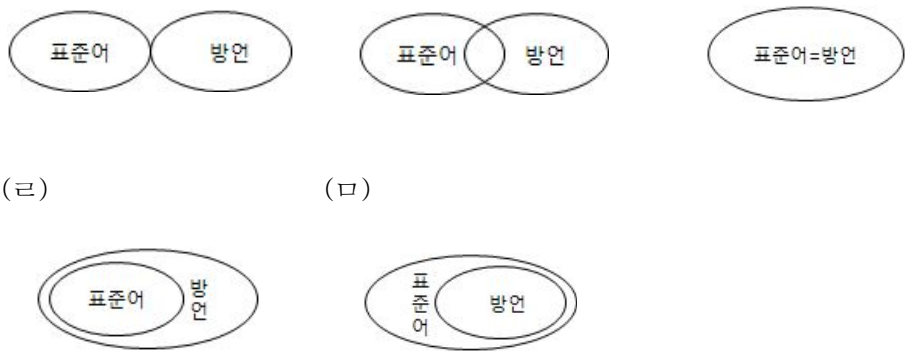
설문의 의도에 따른 예상 답변은 전설 모음화나 'ㅣ'모음 역행동화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모두 '사투리(17.3%)'나 '지역성(10.6%)'을 알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전설 모음화나 'ㅣ'모음 역행동화와 같은 응답은 2학년에서는 거의 없었지만, 3학년에서는 일부 있었다. 그러나 무응답자(40.3%)가 가장 많았고, 구개음화(9.6%)나 언어의 특성 중의 사회성(3.9%)이라고 오답을 적은 학생들도 일부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3학년 1학기 2단원《중심 내용 파악하기》소단원(1)에 수록된 <표준어와 방언>에는 구개음화나 전설모음화 그리고 규칙 용언이나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4단원《음운의 변동》소단원(2)에 수록된 <음운의 동화>에서도 구개음화나 자음동화 등에 대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자가 많았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한 국어 지식을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구개음화'나 '전설 모음화'와 같은 언어 현상들을 방언을 이용해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므로 방언의 교육적 활용 가치가 크다.

아래의 (15)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예로, 아래 표는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표준어와 방언의 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 설문 문항(5)에 대한 결과이다.

(15) (ㄱ) (ㄴ) (ㄷ)



(ㄹ) (ㅁ)

<표 15>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응답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ㅁ)	11명	30.5%	(ㄹ)	37명	54.4%
(ㄴ)	9명	25%	(ㄴ)	14명	20.6%
(ㄹ)	8명	22.2%	(ㄷ)	10명	14.7%
(ㄱ)	4명	11.1%	(ㅁ)	7명	10.3%
(ㄷ)	2명	5.6%	(ㄱ)	0명	0%
무응답	2명	5.6%	무응답	없음	0%

2학년에서는 방언이 표준어의 일부인 (ㅁ)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30.5%)이 가장 많았으며, 표준어와 방언이 일부 중복된다는 (ㄴ)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25%)과, 표준어가 방언의 일부인 (ㄹ)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22.2%)이 있었다. 또한 방언과 표준어가 아무 상관없다는 (ㄱ)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11.1%)도 있었다.

3학년에서는 표준어가 방언의 일부인 (ㄹ)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54.4%)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방언과 표준어가 아무 상관없다는 (ㄱ)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2단원에 수록된 <표준어와 방언>과 같은 제재글을 통한 방언 교육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방언 교육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전까지는 방언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얼마든지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방언의 존재는 표준어가 표준어로 기능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표준어는 임의로 선정된 서울 방언의 하나일 뿐이고, 다른 방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준어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표준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방언이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라도 방언 교육은 필요하다.

한편 (16)은 설문 문항(7)로 사회방언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래의 대화를 미루어 볼 때, 어떤 방언과 관련되었을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16) 우리 엄마는 동생에게 '맘마, 먹어'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밥 먹어', 할아버지께는 '진지 드세요'라고 해요.

<표 16> 사회방언에 대한 인식과 발생 요인에 대한 응답

문항(7-1)			문항(7-2)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사회방언	**54명**	**52%**	**연령**	**79명**	**76%**
방언과 관련 없다	39명	37.5%	지역	15명	14.5%
지역방언	10명	9.6%	계층	4명	3.8%
선택 안 함	1명	0.9%	성별	2명	1.9%
			장소	2명	1.9%
			선택안함	2명	1.9%

사회방언과 관련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52%)으로 많았지만, 방언과 관련이 없다고 한 학생들도 많았다(37.5%). 만약 위의 대화에서 쓰인 방언을 사회방언으로 본다면, 사회방언의 발생 요인은 어떤 것과 관련 있을지 선택하도록 하는 조사에서는 연령(76%)이 가장 많이 선택 되었다.

위의 예문은 대상에 따른 언어 예절을 보여주는 것으로, 엄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단어인 '밥'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즉, 동생인 아기에게는 '맘마', 나에게는 '밥',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는 '진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이 언어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사회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익섭 2004:137).

3.1.2. 문학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인식[35)]

35) 3.1의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의 조사 방법과 같다.

문학어로서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앞서 설문지의 예문으로 든 수필이나 소설의 경우처럼 (13)~(14)의 하위 설문 문항 (3-3)과 (4-3)으로 문학작품에서 방언 어휘를 사용하거나, 대화 속에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언형 시어와 표준어를 제시한 후 시어로 적합할 것 같은 단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수필 작품에서 방언 대화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3-3)에 대한 결과이다.

<표 17> 문학작품의 대화에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응답

응답 내용	2학년	3학년	총 응답자	비율
친근감[36]	14명	50명	64명	61.5%
향토적(구수하다)	7명	7명	14명	13.5%
사실성 현실적	1명	8명	9명	8.7%
현장감	1명	2명	3명	2.8%
재미있음	2명	0명	2명	1.9%
발음이 용이함	0명	1명	1명	1%
믿음감	1명	0명	1명	1%
동질감	1명	0명	1명	1%
사투리의 개념	1명	0명	1명	1%
무응답	8명	0명	8명	7.6%

표를 보면, 위 설문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61.5%)'가 가장 많았고, '향토적이다(13.5%)'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사실성(8.7%)이나 현장감(2.8%)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고, 믿음감(1%)이나 동질감(1%)을 준다는 예상 외의 답변도 있었다.[37] 그런데 (13)의 김용택의 수필 <창우야, 다희

36) '친근감'에는 '친밀감, 다정다감함, 정겨움, 나긋나긋함' 등의 응답도 포함하였다.
37) 이태준은 등장인물들이 '생활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진실해진다고 보고 있다. 방언의 사실성을 강조한

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에서 방언이 사용된 부분은 단 한 부분이지만, 방언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친근감뿐만 아니라, 향토성, 사실성, 현장감을 준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에서 쓰인 방언 어휘 '살눈썹'을 예로 들어, 문학 작품에서 표준어 '속눈썹'이 아닌 '살눈썹'을 씀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문항(4-5) 결과이다.

<표 18> 문학작품에서 방언 어휘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응답

응답 내용	2학년	3학년	총 응답자	비율
친근감[38]	8명	16명	24명	23.1%
지역성[39]	0명	10명	10명	9.7%
의미 이해	0명	10명	10명	9.7%
즐거움 흥미	3명	0명	3명	2.8%
향토성(구수함)	1명	2명	3명	2.8%
문학성	1명	0명	1명	1%
사실성 (현실적 묘사)	0명	3명	3명	2.8%
현장감	0명	1명	1명	1%
발음의 편리함	0명	3명	3명	2.8%
혼란[40]	0명	2명	2명	1.9%
무응답	23명	21명	44명	42.4%

위의 표를 보면, '무응답(42.4%)'이 가장 많으며, 응답 내용 중에서는 '친근감(23.1%)'이 많고, '지역적 배경(9.7%)'이나 '의미 이해(9.7%)'에 도움을 준다가 그 다

내용이다 -이태영(2004:25)에서 재인용.

38) '친밀감, 다정다감함, 정겨움, 나긋나긋함' 등의 답변도 '친근감'에 포함시켰다.

39) '지역적 배경, 혹은 북한이라는 공간 배경, 지역 특성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40)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었다.

음으로 선택되었다. 그런데 3학년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북한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9.7%)'나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9.7%)'이라는 응답이 있어서,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 선택 답변이 없는 2학년 학생들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의 조사에서 학생들은 소설이나 수필 등 문학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역방언이고, 그 방언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설에 쓰이는 특수한 지역방언 어휘의 효과에 대해서 묻는 설문에는 무응답이 많다는 점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설문 문항(8)은 시어로서 방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로 조사하였다. 다음 (17)은 김영랑, 양정자, 김소월, 박두진, 박재삼의 시의 시구로, 문항(8)에서는 의도적으로 (　)안에 방언형 시어와 표준어를 제시한 후 시어로 적합할 것 같은 단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7) 김영랑 : (새악시, 새색시) 볼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양정자 : (어둑어둑한, 어둑신한) 교정 한 구석이

김소월 : 가시는 걸음 걸음 /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지르 밟고) 가시옵소서.

박두진 : (앳되고, 앳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박재삼 : 울(엄매,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중략)

울 (엄매, 엄마)야 울 (엄매, 엄마),

<표 19> 시어로 적합한 언어 선택에 대한 응답

방언을 사용한 시어			표준어를 사용한 시어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새악시	70명	67.3%	새색시	34명	32.7%

어둑신한	62명	59.6%	**어둑어둑한**	42명	40.4%
즈려밟고	83명	79.8%	**지르밟고**	21명	20.2%
앳띠고	73명	70.2%	**앳되고**	31명	29.8%
엄매	61명	58.7%	**엄마**	43명	41.3%

어느 정도의 주관성이 따르는 선택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응답자인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많은 학생들은 표준어보다 방언을 시어로서 적합하다고 선택하였다[41].

(17)에 인용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중학교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지만 대중가요의 가사로도 사용되어 학생들에게 익숙한 제재이다. 따라서 표준어인 '지르밟고(20.2%)'보다 방언인 '즈려밟고(79.8%)'가 더 많이 선택되는 양상을 보인다. 박재삼의 <추억에서>는 '울 엄매'와 '오명가명' 등의 경상도 방언이 쓰였으며, 가난에 한이 맺힌 어머니의 애처러운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엄마(41.3%)' 보다 '울 엄매(58.7%)'가 더 정겹고 전체적인 정서와도 조화를 이룬다.

3.2. 방언 교육 현황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교육과정과는 무관하지만 방언으로 씌어진 문학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다. 앞에서 이는 방언과 관련된 간접적 교육제재로, 잠재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모든 학교에서 방언 교육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성은 흥미 유발이나 위계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더 문제인 것은 방언을 국어학적 지식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41) 인용한 시들은 이미 시 작품 속에서 방언이 시어로 쓰이고 있지만, (17)에서 예로 든 작품 중 김영랑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중 양정자 <가을 소녀들>, 박두진 <해>가 [보충·심화]활동에 수록되어 있고,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박재삼의 <추억에서>는 고등국어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응답자들이 <진달래꽃>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국어 시간에 방언을 사용한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지와 교과서 이외의 별도의 참고 자료를 통해 방언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중학교 3학년에게 방언 제재글을 교육한 후 방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표준어만을 사용할 경우의 어휘 폭이 줄어든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문학 작품의 방언 어휘를 검토하여 복수표준어나 표준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소설의 대화 상황이나 시의 언어에서 낯선 방언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교육받았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9)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방언 교육 방법에 대한 응답[42)]

설문 내용	응답자	응답비율
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현장감, 향토성, 리얼리즘 등)에 대해 배웠다.	69명	40.8%
각주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였다.	50명	29.6%
방언을 표준어형로 바꿔 보았다.	23명	13.6%
어떤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방언인지 배웠다.	11명	6.5%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방언인지 배웠다.	6명	3.5%
음운론적 현상이나 문법과 관련하여 배웠다.	5명	3.0%
선택 안 함	5명	3.0%

위의 표를 보면, 방언교육 방법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방언 사용 효과'로 (4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각주를 보고 의미 파악(29.6%)'을 하거나, '방언을 표준어형으로 바꿔 보는 학습을 했다(13.6%)'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어떤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방언인지에 대해 학습하였다(6.5%)'거나, '어떠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방언인지에 대해서

42) 답변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많은 답변을 얻은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배웠다(3.5%)', 혹은 '음운론적 현상이나 문법과 관련하여 배웠다(3%)'고 응답한 학생들은 비교적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문학에 녹아 있는 방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각주에 간단한 어휘 해석이 실려 있다든가 '표현 효과를 알아보자'라는 식의 획일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져 자칫 주입식으로 가르쳐졌다. 단순히 낯선 단어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려준 다음, 표준어로 번역해서 읽게 하는 방법은 시를 이해하는 첫 걸음으로, 당연히 방언에 대한 이해와 사전 지식은 필요하다.[43] 그러나 방언의 뜻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지루한 수업, 학생들에게 암기를 강요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학습자는 암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참고하여 방언의 뜻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감상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한편 설문 문항(6)은 국어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 교재나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방언에 대한 학습을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21> 국어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별도의 참고 자료를 통해 방언 교육을 학습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2) 아니오	**77명**	**74%**
(1) 네	27명	26%

표를 보면, 참고교재나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방언에 대한 학습을 한 적이 '없다(74%)'고 응답한 학생들이 매우 많다. 방언의 여러 국어 교육적 의의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 중에는 방언만을 다루는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실제 국어교육 현장에서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나의 대단원을 따로 편성하여 국어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44] 그러나 현재 설문 조사의

43) 김주선(2001:22)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방언으로 씌어진 문학작품을 표준어로 바꾼다면 과연 그 작품의 창작의도와 작품의 예술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4) 신희삼(2002),윤천탁(2003), 조규태(2003) 등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

결과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해결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다.

다음은 설문 문항(10)으로 3학년의 학생들에게만 3학년 1학기 2단원에 수록된 <표준어와 방언> 글을 예로 들어, 방언에 대한 인식이 글을 배우기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22> 방언 제재글을 교육한 후의 인식 변화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40명	58.8%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1명	1.4%
아무 변화 없다.	27명	39.8%
기타	0명	0%

위의 표를 보면, 방언 제재글을 통해 방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자(58.8%)가 가장 많고, 반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1.4%)는 거의 없다. 물론 '아무 변화 없다'는 응답자(39.8%)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방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학습자가 방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아래는 설문 문항(11)에서 표준어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어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동의한다'는 응답자(70.2%)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23> 표준어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어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응답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총계
전적으로 동의한다	33명	31.7%	70.2%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21명	20.2%	
동의한다	19명	18.3%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6명	15.4%	22%
동의하지 않는다	4명	3.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명	2.8%	
선택 안 함	8명	7.8%	7.8%

그리고 <표 24>는 표준어 규정 제23항과 제24항 '멍게(우렁쉥이), 애순(어린순)처럼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를 예로 들어서, 문학작품에서 방언형 어휘를 검토하여 복수표준어나 표준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설문 문항(12)한 결과이다.

<표 24> 문학작품의 방언 어휘를 검토하여 복수표준어나 표준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응답

응답 내용	응답자	응답 비율
찬성한다	**76명**	**73.1%**
반대한다	20명	19.2%
선택 안 함	8명	7.7%

위의 표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1%)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규(2004:487)에서는 방언이라고 해서 표준어에 비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준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방언 어휘 속에 표준어로 등재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렇게 방언을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학작품에서 쓰인 방언형 어휘가 표준어로 허용되는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아래는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의 작가 조정래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45)]

45) 작가 조정래 녹음-전주 MBC 창사 35주년 기념 라디오 프로그램 <그냥 버리기 아까운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 김주선(2001:22~23) 재인용.

"'솔찮혀' 특히 '아슴찮혀', '아슴찬혀' 이런 말을 태백산맥에 썼을 때 그쪽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구요. 이미 이 말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느냐 뭐 '음마', '워메' 뭐 이런 감탄사 시대말로 끝내주죠. 다른 '어머'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어쩌까이~' 뭐 이런 식의 어미 그리고 '이?''아','이~잉'이 어감에 따라 뜻이 다 틀리잖아요. 이건 전라도 말만이 갖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부분이에요. 특히 어떤 것이냐면은 '뻘' 그것이 사전에는 '벌' 그래나와 있습니다. '꼬막' 이것이 '고막'으로 나와있습니다. 귓고막인지 '벌'이면 벌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이것을 전부 표준어로 고친다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책임질테니깐 '꼬막'은 그 지역밖에 없는 거고 '뻘'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이고 표준어 서울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고유어는 그 표준어로 삼아야 된다. '뻘'로 쓰고 '꼬막'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태백산맥에는 아리랑에도 '뻘'이라고 부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사를 보면 '뻘'이라고 나와요. '꼬막'도 '벌교 꼬막' 그래가지고 서울 수퍼마켓에 나와있습니다. 한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언어도 고정을 시키면 전국민화 될 수 있습니다. 표준말 사전만 딱 옳은 게 아닙니다. 사전에도 오류가 있지요."

이 말의 요지는 문학 작품에서 그 지역 출신의 작가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의 언어를 살려 쓰면 사라져 가는 어휘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46] 결국, 방언은 표준어의 한계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 특히 방언 가운데 그 지방의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휘들은, 비록 사용자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사라지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우리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방언이 표준어에 눌려 점점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 고유의 문화도 함께 사라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언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방언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그에 따른 다양한 수용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46) 김주선(2001:22)에서 재인용.

Ⅳ.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교과서 문학 방언의 활용 방안

4.1. 방언 교육의 필요성

앞의 Ⅱ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방언에 관한 교육과정은 따로 없지만, '간접적인 교육 제재'로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Ⅲ장에서 방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방언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각 지역방언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교육되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은 해당 지역방언의 특성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방언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방언 교육을 받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방언 교육을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거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언 교육을 하기 전후의 인식도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방언 교육을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표준어나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언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47]

방언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학 작품에서 방언이 나올 경우, 단순히 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현장감이나 향토성, 리얼리즘과 같은 효과에 대해 배우거나, 각주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등 획일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어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문학 지문을

47) 장창영(2004:208)에서는 방언은 과거의 언어, 죽은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현재형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도 표준어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인용하여 방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지역은 물론, 어떤 사회 맥락적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의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윤천탁(2003)에서는 국어표현·이해 영역에서 방언은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구어 능력의 발달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증대시켜 의사소통을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하기와 말하기 능력의 향상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고 있다. 그리고 문학 영역과 관련한 방언은 구비 문학에 나타난 조상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근·현대문학에서 제대로 작품을 이해하고, 국어 문학 창조에 이바지한다. 또한 언어·국어지식 영역에서는 표준어나 어휘 교육, 그리고 국어의 음운 현상이나 국어사, 더 나아가 일반적인 언어 체계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는 "특정 지역의 방언은 표준어나 다른 지역의 방언과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를 담아 국어의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므로, 국어교육의 지역성을 지향하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국어 교육적 의의가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되는 교과서의 방언 관련 내용들이 나름대로 국어교육에서 방언의 의의를 살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교과서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방언을 통해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각성하고 있다.[48]

한편 현재의 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볼 때, 2010년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점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5>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

48) 김주선(2001:9~19)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방언교육의 필요성을 방언이 표준어의 한계성을 보완해주며, 언어적 보고(寶庫)의 역할을 하는 데 두었다. 또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 국가에서의 방언보존에 대한 노력을 예로 들고, 궁극적으로 방언 교육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위의 표에 의하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국어 활동 현장의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곧 국어교육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호와 기호 자체적인 특성, 약호와 의미 작용 방식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 및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김혜숙 2009:4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로서 지역방언이나 사회방언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원은 다음과 같다.[49]

<표 26>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교육 관련 내용[50]

학년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9	듣기	(3) 지역방언을 듣고 언어의 다양성과 소통의 의미를 이해한다.	- 표준어와 지역방언의 쓰임 구별하기 -지역방언의 문화적 가치 이해하기 - 지역방언을 통한 소통의 의의 이해하기

49) 김혜숙(2009:42)에서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관련 내용을 4-문법-(1), 8-쓰기-(4), 8-문법-(2), 10-듣기-(3)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법 영역에 치중되어 있고, 네 부분 중 8학년에만 두 영역에 걸쳐 제시되고 있으므로, 연계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10	〃	(3) 사회방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 사회방언의 특성 이해하기 - 사회방언의 다양한 표현 조사하기 - 사회방언에 반영된 집단의 특성 파악하기 - 사회방언의 소통 기능 이해하기

위의 표를 따르면, 9학년(중3) 듣기 영역과 10학년(고1) 듣기 영역에서 방언 교육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담화의 수준과 범위는 '지역방언 혹은 사회방언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화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 범위가 설정될 것인데, 국정 교과서인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방언 관련 문학 작품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23종의 검인정 국어 교과서에서 다시 수록될 수 있으며, 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장창영(2005:250)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방언교육이 단어의 의미 규명에만 치우친 나머지 방언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나 다중성을 파악하는 데는 소홀히 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문학 작품이 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도구로 사용된 언어가 방언이라면 그 사회를 사실적이고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다. 방언은 그 시대의 살아있는 언어로서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나 시대, 혹은 사회 담화의 상황적 맥락 등의 모습으로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러한 문학 작품을 통해 방언 교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므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방언 교육으로서 문학 작품을 재고해볼만하다.

4.2. 방언 교육의 방안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러 새로 실리기 시작한 작품들은 시사하는 바가

5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크다. 이전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어 사용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지만,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러 교육과정의 분권화나 지역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방언의 표현 효과나 상황에 따른 방언의 사용 등 방언과 관련하여 교육할 수 있는 제재들이 풍부해졌음을 뒷받침해준다.[51] 이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서도 또 다시 실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방언이 사용된 문학 작품을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

방언 교육의 방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접할 때, 그 작품의 지역적 배경이나 해당 지역방언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는 일이다. 앞에서 학생들이 방언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양상이나 방언 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습자들이 방언과 배경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언은 그 말 끝에서 뚜렷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 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해당 지역방언의 종결 어미의 특성만 알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 작품의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준어와 방언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영역별로 어휘나 음운, 문법의 체계 차이에 대한 이해시키며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였지만, 단순히 문법 영역에서 국어 언어학적 접근으로만 방언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

51) 조미숙(2007:375)에서는 미군정기 이후 1차부터 7차까지의 중·고등학교의 국정교과서의 게재 소설 목록을 일람하였다. 즉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중·고등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소설은 반복, 대체(같은 차수 내에서 교환된 경우)하며 실려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국어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한눈에 보면서 국어교과서가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국정교과서 위주의 우리 국어 교육의 미래에 검인정 교과서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7차에 와서 새로 실리기 시작한 작품들이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 하근찬의 <흰 종이수염>, 윤흥길의 <장마>, 김유정의 <동백꽃>, 김영민 학생의 <연년생>,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이범선의 <오발탄> 등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김유정의 <봄·봄>, 윤흥길의 <장마>, 이청준의 <눈길>, 박태원의 <천변풍경>, 최인훈의 <광장>,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의 작품이 게재되었다.

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방언 어휘에서 표준어로 등재해도 좋을 만한 말들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언은 표준어의 한계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 이러한 방식은 문학 영역 중에서 시 장르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표준어와 방언의 대조 방식으로 표준어 교육의 영역과 연관한 방언 교육은 표준어의 체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매체를 활용한 방언 교육이다.[5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였지만, 사회 언어학적 접근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사회적 신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분석할 수 있다. 같은 방언권 화자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표준어를 구사하지만, 비천하거나 힘이 없거나 악한 사람들은 방언을 사용하는 현상을 살펴보고 여기에 개재해 있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방언이나 표준어에 대해서 너무 양분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봉산탈춤>과 같은 작품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방언을 사용하는 작품도 있고, 비록 사회적 지위는 낮으며 방언도 사용하지만, 방언을 사용하는 궁극적 이유가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 제도와 양반층을 풍자할 목적도 있음을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이상규(2004:488~489)에서 논의한 글쓰기 영역에서 방언으로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표준어보다 진솔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천박한 비속어를 방언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하며, 방언으로 글쓰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표준어로 옮겨 적기를 시켜 표준어와 방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구어체로 말하도록 함으로써 방언 표현이 표준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스스로 체

52) 장창영(2005:255~256)에서도 방언에 대한 위상을 어떻게 세우고, 방언 교육으로 접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방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방언 사용자들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고, 그들이 즐겨 구사하는 어휘와 맞물려 방언 전체 사용자의 위상을 격하시키며,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비하의식과 불쾌감을 조장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방언에 대한 인식 전반을 전환하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험하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도 말하기 및 듣기 교육에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어가 지리적 및 사회적 요인에 따라 공시적으로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현대 국어의 방언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의 존재는 예외 없이 어느 일정한 지역의 출신이며 동시에 일정한 사회 계층과 연령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최전승 외 1999:233). 즉 언어는 사회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따라서 그가 속한 지역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방언을 잘 못 인식하게 되면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장애가 일어난다. 또한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문화적 차이를 유발시키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관심을 반영한다. 방언에도 문화적인 관심이 반영되어 어휘 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순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나 방언을 표준어와 적절히 조화시키는 내용, 그리고 방언을 의사소통 측면에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교과서 문학 방언의 활용 방안

아래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에서 방언 교육 제재로 활용 가능한 문학 작품을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지역방언 교육 제재의 활용 차원으로는 문학작품에서 화자나 작중인물이 쓰고 있는 지역방언의 성격에 따라 경상도·전라도·경기도·충청도·강원도 등 각 지역으로 분류하여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방언 교육 제재의 활용 차원으로는 계급이나 연령,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사회방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제재를 분석하였다.

4.3.1. 지역방언 차원의 활용 방안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그 누구보다 깊이 절감하는 사람들은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작가들이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각 지역의 방언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에서 지역방언을 교육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목록이다.[53]

<표 2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 지역방언을 교육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목록

지역	작가	작품	장르
경상도	오영수	요람기	소설
	하근찬	흰 종이 수염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박목월	가정	시
	이육사	청포도	〃
	박재삼	추억에서	〃
	김남조	설일	〃
	김성칠	역사 앞에서	일기문
전라도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시
	복효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소설
	박상률	생일 선물	〃
	윤흥길	장마	〃
	이청준	눈길	〃
	학생	연년생	〃
	황용희	섬마을 아이들	수필

53) 고전문학 차원에서의 활용은 2.2.2.1.고전 문학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제외하고 현대문학 작품에서만 논의한다.

	김용택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수필
경기도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소설
	〃	그 여자네 집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염상섭	삼대	〃
충청도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
	서정범	미리내	수필
	정지용	향수	시
강원도	김유정	동백꽃	소설
	〃	봄・봄	〃
	학생	잃어버린 고향	시
함경도	한하운	나의 슬픈 반생기	자서전
	최인훈	광장	소설
평안도	황순원	소나기	〃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
	이범선	오발탄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시
	〃	진달래꽃	〃
	백석	여승	〃

위의 표를 통해, 제7차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등 각 지역의 지역성이나 향토성을 알 수 있는 방언 교육 제재가 실려 있지만, 제주도와 관련된 문학 방언 제재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각 지방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방언 문학도 재고해볼만한데, 제주도와 관련된 방언 문학 작품으로 제주도의 4・3

사건을 소재로 한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같은 작품이 있다.

위의 표에서 열거된 각 지역의 문학 작품 중 대부분의 시와 소설들은 앞의 2.2.2에서 지역성과 방언 사용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으므로, 앞부분에서 언급하지 못한 몇몇의 작품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먼저, 충청도라는 지역과 관련한 지역방언을 교육할 수 있는 제재로는 소설 <동의보감>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허준이 내의원이 되기 위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충청도 진천의 한 주막에 묵게 되면서 가난한 병자를 치료한 행적을 그려내고 있다.

(18) ㄱ. 마을 사람들

"저는 눈이 침침하구, 아침 저녁 기침으로 애먹구 있는디요."

"우리 애는 눈이 사팔인디 봐 주세유."

"이 사람들이 참말로! 글쎄, 이 의원 양반들은 한시바삐 한양으로 가셔야 한다고 안혀!"

"야, 이놈아, 돈 안 받는 의원이라메. 왜 너 혼자만 덕을 보겠다구 가루막어?"

ㄴ. 정상구

"우옐랑교? 난 걸음발도 느리고 더 지체할 수 없심더."

ㄷ. 마을 촌로

"의원님 말씀이 점잖은데 우리도 마냥 떼를 쓰듯 길을 막을 순 없지만, 다믄 아침 한나절만이라도 병을 보아 주실 수 없을지요?"

ㄹ. 우공보

"대체 여기가 무어요? 애초 약속이 이렇지 않았잖소? 여기는 충청도 진천이오. 갈 길이 아직 이백육십 리가 남았소."(우공보)

이 작품은 공간적 배경이 충청도 진천의 산골 마을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등장인물들은 충청도의 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같은 마을에서 살지만, 그 마을의 촌로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조적인 언어의 모습이다. 촌로는 방언이 아닌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마을 주민들은 충청도 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촌로는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서,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구사하여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드러내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그 지방 특유의 정서를 표현하고, 독자에게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언의 사용은 허준이 정말로 충청도 진천에 머무르고 있다는 작품의 사실성 또한 높여 주며,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한편, 마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허준과 같이 과거를 보러 가는 의원 우공보와, 정상구의 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를 보러가는 허준을 막아선 마을 사람들과 고민하는 허준을 두고, 정상구는 '우옐랑교? 난 걸음발도 느리고 더 지체할 수 없심더.'라고 말했고, 우공보는 '아직 갈 길이 이백사십 리나 남았소. 이백사십 리가 뭐요? 근 이십 리 되돌아왔으니 이백육십 리가 남았는데, 이 병자들을 상대로 여기서 무얼 어쩌잔 거요?'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우공보나 정상구, 그리고 허준은 각기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만난 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작가 김유정의 작품은 <동백꽃>과 <봄・봄>이다. 두 작품은 모두 1930년대 강원도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 "느 집엔 이거 없지?" (중략)
"염려 마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중략)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때리고 달아날지언정……. (중략)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중략)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겨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김유정 <동백꽃>-

(20)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중략)
"안야!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구 하니까 (중략)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마슬 간 것이 썩 나빴다.
"관객이 났어유, 아이구 배야."

-김유정 <봄・봄>-

(19)와 (20)은 193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의 소설이다. 이때 작가는 작품에서 강원도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서민층의 독특한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했고,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이 느껴지며 탄력과 활력이 넘치도록 하였다.

<봄・봄>에서는 '가장자리'의 방언인 '가생이'와 '다리'의 방언인 '대리', '아직'의 방언인 '안즉'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고, '마을'의 방언인 '마슬'도 사용되는데, 이는 어원에서 비롯된 방언으로, 이웃에 놀러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19)와 (20)에서 강원도 방언의 종결 어미인 '-유'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2. 사회방언 차원의 활용 방안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대체로 사회적인 배경이 같아도 지역이 다르면 별개 지역방언을 쓰고, 반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회적인 조건이 다르면 별개 사회방언을 쓰는 것으로 두 방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방언이란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계급, 연령, 성별,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방언을 말한다(이익섭 2004:80~82).[54]

54) 지역방언이 지역이 멀리 떨어짐으로써 생긴, 또는 산맥이나 강, 늪, 산림과 같은 장애물에 의한 지역적인 거리로 말미암아 갈린 방언들이라면 사회방언은 사회 계급이 다르든가, 연령이 다르든가, 또는 성별이나 인종 등이 다름으로써 어쩔수 없이 생긴 사회적 거리에 의해 갈린 방언들이다. 달리 말하면 지역방언은 지리적인 집단에 의해 형성된 방언이요, 사회방언은 사회적 집단에 의해 형성된 방언이다(이익섭 2004).

이렇듯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직업이나 지위, 성별,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방언 교육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3.2.1. 계급에 따른 사회방언

사회 계층의 모습이 인습적으로 굳어진 특수 계층의 언어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에 따라서 분화된 방언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계급 방언이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상민, 천민 계층으로 구분되어서 언어가 쓰이기도 하고, 또 상류 사회에서 쓰는 말이라도 양반 계층의 말과 궁중어가 다르게 쓰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사(士)·농(農)·공(工)·상(商)·노비·천민 등의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른 방언차이가 존재했다.[55] 양반과 상민, 천민 계층으로 구분된 언어를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고등국어(상) 3단원《다양한 표현과 이해》 소단원 (2) <봉산탈춤>을 들 수 있다.[56]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군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대사 속에서 지역방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18C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C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와해되던 시기로서, 서민 의식이 성장했다. 이 작품 안에는 서민과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합되어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봉산 탈춤> '제6과장'에 나오는 말뚝이는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의 신분으로, 겉으로는 양반에게 복종하는 듯하나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인물이며, 이에 비해 양반 삼 형제는 허위 의식을 지닌 무능한 양반의 전형으로 희화화된 인물이

55) 이상규(2004:43)에서는 경북 안동지역의 반촌 마을에서는 친인척 늙은 여성에게 "할매 이거 드시게"와 같이 '하게체'를 사용한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궁중어로서 '마마(王)', '상감', '중전', '동궁', '수라(임금의 진지)', '세신다(잡수신다)', '치(신)', '梅花(대변)'와 같은 특수한 언어가 있으며, 산삼채집자들의 은어인 '다부리다(먹다)', '무리·무리미(밥)' 나, 백정집단에서 사용하는 은어인 '탈팽이(쇠고기)', '신탱이(칼)', '갈지받다(소잡다)', 승려들이 사용하는 '곡차(술)', '도끼버섯(쇠고기)', '천리채(닭고기'와 같은 은어들을 예로 들어 사회계층에 따른 방언차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56) 전통민속극 탈춤의 대본인 희곡 작품,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다. 취발이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경제력을 갖춘 상인 계급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교과서에 수록된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21)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말뚝이 :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생원 : 네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여)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이 작품은 조선 말기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말뚝이는 피지배층인 하인으로, 양반 삼 형제는 지배층인 양반으로 신분상의 차이가 엄연히 있다.

평민들의 대변자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고 무시한다. 말뚝이의 대사 중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에서는 비속어와 비격식체를 이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고, 양반들은 물론이며 상인 계급인 취발이에게도 '하오체'를 쓰고 있다. 이에 양반들은 말뚝이에게 '해라체'를 쓰고 있지만, 말뚝이에게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희화화된 인물로 무능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언의 사용은 사회・계층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 김용직(1996:98)은 방언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지역적 방언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회・계층적인

측면에서 문학에 반영되는 방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곧 지배 계층어는 주로 문어적 특징을 갖는 반면에 기층민들의 문학에는 계층방언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계급에 따른 궁중어로서 사회방언을 찾을 수 있는 작품으로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보충・심화]에 수록된 서사 무가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가 있다. 류수열(2009:153)운 구비문학 중에서 방언의 영향이 가장 강한 것을 무가를 들었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에서는 지역방언은 쓰이지 않고, 사회방언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이 아내나 사위나 며느릿감을 고르기 위해 내리는 명령인 '간택령'이나, 임금이 먹는 밥을 이르는 '수라' 등이 그것이다.

한편, 곽현주(2003:69)는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하층 계급이라는 점을 들어 문학 방언을 이용한 방언 교육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양반 계급은 표준어 위주의 언어생활을 하고, 하층 계급은 방언을 사용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은연중에 표준어는 상층 계급의 언어이고, 방언은 하층계급의 언어라는 양분법적 사고를 갖게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사용한 문학 작품을 교육 제재로 선정할 때, 제재의 질을 고려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 특수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사실들까지 반영하여 담아낸다. 그리고 이때 작품의 언어로 기록되는 방언은 분명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글을 읽는 학습자들은 작품의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고, 등장인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4.3.2.2. 연령에 따른 사회방언

나이에 따라서도 언어가 달리 쓰일 수 있다. 정길남(2003:153)은 나이에 따라서 언어가 달리 쓰이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통신을 할 때 쓰이는 통신 언어를 들었다. 그에 따른 근거로 통신 언어는 그에 능숙한 젊은이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다. 컴퓨터의 통신 언어가 급격하게 발달

하면서 이들 젊은이들이 나이에 따른 언어 계층을 형성하면서 그들 집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은어와 속어를 만들어내는 실정이라 본 것이다.

고등국어(하) 3단원《함께하는 언어 생활》소단원 (2)에 수록된 작품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는 실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기도 한 드라마 시나리오이다. 때문에 생생한 구어체와 일상적인 비속어, 통신 언어 등의 사용이 두드러진 작품이며, 청소년의 언어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한 교과서 학습으로는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활동이 있다.

다음은 흥수와 흥수를 놀리는 아이들의 대화가 수록된 '장면 2-영화반'의 일부이다.

(22) 흥수 : 눈에 깁스를 하라 그래라.
애라 : 얼굴이 되잖냐. 얼굴이 양심 불량인 애들이 좀 많았냐?
애라 : 인간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죽이 덜 매력적이니까
유미 : 너무 말라서 비린내 나게 생겼잖아?
지민 : 머리가 따라 주잖냐?

학생들의 말하기 방식을 살펴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한 사람을 놀리면서 인신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상대를 고려하는 말로 순화해야 할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고치면 다음과 같다.

(23) 흥수 : 사람을 제대로 보라고 그래라.
애라 : 얼굴이 잘생겼잖아. 얼굴이 못생긴 애들이 좀 많았냐?
애라 : 외모가 덜 매력적이니까
유미 : 너무 말랐잖아
지민 : 머리가 좋잖아?

또한, '장면 19-광도의 주방'에서 흥수와 광도의 말하기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수는 통신 언어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하

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흥수의 아버지인 광도는 주로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24) 흥수 : …… 드, 드세요.
광도 : (비식 새어 나오는 웃음) 네가 끓였냐?
흥수 : 보, 볼품은 없어 보여도 맛은 있어요. (중략)
흥수 : 먹고 살 좀 찌세요. 대충 대충 먹으니까 그런 가난한 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남세스럽게 결핵이 뭐예요, 결핵이……. (중략)
흥수 :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하며) 컴퓨터, 고맙습다. 그리고요……. (다시 고개 푹 숙여 인사하며) 죄송함다…….
흥수 : …… 죄송함다……. (중략)
흥수 : 한때 아부지가 부끄러웠습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여서, 제가 커 가는 만큼 아버지가 작게 보여서……. 애들이 아부지 욕할 때마다 제가 아부지 아들인게 부끄러워서 같이 욕했던 적도 있었습다.
흥수 : 정말 죄송함다…….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심 좋겠습다.
광도 : 늘 맑아서, 늘 건강하게 웃어 줘서, 삐딱선 안 타고 버텨 줘서,[57] 이럴 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서 참 고맙다…….
흥수 : …… 이렇게 이쁜 아들을 다 두고, 아버진 성공한 인생이심다.

통신언어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준말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PC의 보급으로 통신상에서 새로운 언어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인터넷상의 언어이며 이제는 새로운 소통방식의 하나가 되고 있다(이상규 2004:45).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의사 전달을 신속하게 해야 하므로 언어를 단축하거나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적 표기가 많이 나타난다. ‘방가(반갑습니다)’, ‘간도(그만 둬)’, ‘잼 엄서(재미없어)’, ‘글죠(그렇지요)’, ‘믄(무슨)’, ‘셤(시험)’, ‘어셥쇼(어서 오십시오)’ 등은 어휘를 단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

57)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랐다는 의미로,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 줘서’로 순화해야 한다.

다.[58]

위의 홍수의 말하기에서도 '고맙슴다(고맙습니다)', '죄송함다(죄송합니다)', '부끄러웠슴다(부끄러웠습니다)', '있었슴다(있었습니다)', '건강하심 좋겠슴다(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심다(인생이십니다)' 등 일생 생활에서 통신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어말에 'ㅁ'을 첨가해서 운율적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59]

통신언어에 대한 최근 논의로 강희숙(2010:53)에서는 통신언어는 원래 10대나 20대를 중심으로 한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통용되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연령이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사회방언이라 하였다.

4.3.2.3. 성별에 따른 사회방언

남성이 쓰는 언어와 여성이 쓰는 언어가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는 상대적인 빈도수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생활 영역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기질적인 원인 등에서 비롯된다.[60][61]

구현정・전영옥(2005:312)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28>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남성어	여성어

58) 강희숙(2010:55)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문자 형식의 통신언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의 언어 형식을 축약이나 두음절어 형성, 혼성(blending), 절단(clopping)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하는 준말 형식의 통신언어라 하였다.

59) 이상규(2004:45)에서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어말에 'ㅇ'을 첨가해서 운율적 표기를 하는 현상으로 '갑니당(갑니다), 끔찍해랑(끔찍해라), 나오세용(나오세요)' 등을 예로 들고 있다.

60) 구현정・전영옥(2005:312)에서 재인용.

61) 왕문용(2007)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8종 중에서 10종을 택하여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 여성화자의 상대높임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어를 선호함.	표준어를 선호함.
운동·정치·직업에 관련된 용어를 많이 사용.	가사나 생활·색채어나 감각어를 많이 사용.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언어 구사.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언어 구사.
격식성과 직접성.	친화성과 간접성.

위의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지역방언을 선호하지만, 여성은 표준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익섭(2004:120~121)에서도 여성어와 남성어의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자녀의 교육에 더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표준형을 더 열심히 배워야 할 위치에 있으며, 사회에서 여자들에게 더 바른 행실을 요구하고, 얌전치 못한 행위에 대해 남자들에게보다 가혹한 비판이 가해지므로 언어 면에서 자연히 더 바른 말인 표준형을 쓰게 되며, 남자들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중시하며 이때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그들만의 사투리일 뿐더러 매끄러운 표준형은 여성 취향의 것으로 느껴져 그들의 기질상 선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방언을 찾을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는 김유정의 <봄·봄>이 있다. 이 작품은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작품 중에 남성과 여성어가 다르게 실현되는 예로,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성예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등 표준어에 가깝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인공인 나는 '배가 좀 아파서유!', '난 갈테야유, 그 동안 사경 쳐 내슈, 뭐.', '이걸 까셀라부다!' 등 강원도 지역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속어는 지적이지 않은 비격식적 말투로서 창의성과 유머 감각이 살아 있는 단어나 표현이며, 비어는 일종의 낮춤말로 특정한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원래의 정상적인 어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낮추어서 상스럽게 표현한 말이다.[62] 그러나

62) 나찬연(2006:70~71)에서 속어는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또한 학력 수준이 대체로 낮거나,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속어는 속성상 새롭고 신선한 맛이 있어야 한다. 속어는 일상 언어의 진부함과 싫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새롭고 신선함'이 사라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어떤 경우에는 속어는 은어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

일반적으로 비속어라 하여, 비속어가 주로 쓰이는 작품에는 하층민의 삶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비속어가 실린 작품들로는 고전문학으로 <흥부전>이나, <양반탈춤> 등이 있으며, 현대문학으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하근찬의 <흰 종이수염>, 김유정의 <동백꽃>이나 <봄・봄>, 황용희의 수필 <섬마을 아이들>, 이범선의 <오발탄> 등의 작품들이 있다. 이태영(2004:38)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대화의 방언을 주로 속어와 비어를 쓰게 하여, 추악하고 기괴한 것이나 교양없고 볼품없는 평민의 이미지를 그려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관과 기존질서와 보수적 세계관을 조롱하고자 하는 풍자의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김혜숙(2009:53)에서는 사회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집단 간의 언어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타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언어를 매개로 충돌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사회방언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은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맥락 교육을 만족시키는 교수・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나, 은어에 비해서 훨씬 다양성을 띠며 주로 하류 계층에서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Ⅴ.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문학방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 방언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제7차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통해 잠재적으로 방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전문학 작품들로는 구비 전승된 민요나 민담과 같은 설화와 이를 토대로 하여 서사적 골격을 갖춘 판소리 문학 작품 등이 있었고, 현대문학 작품들로는 시나 소설, 수필 등의 작품들이 있었다.

Ⅲ장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나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작품의 대화나, 방언의 특성과 관련된 글을 예문으로 들어 학생들이 방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대화의 종결어미에서 어떤 지역의 방언이라는 사실은 인식했으나 정작 어느 지역방언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방언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회방언의 의미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어 교육에서 각 지역의 방언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또한 사회방언과 관련된 국어 교육도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학어로서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학 작품에 방언을 사용하면 '친근감이나 향토성, 사실성, 현장감을 준다'고 알고 있었으며, 시어로는 표준어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 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로는 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배우고, 각주를 보고 의미 파악을 하거나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는 식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흥미 유발이나 그 지역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입식이나 획일적으로 방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교과서가 아닌 참고교재나 별도의 자료를 활용한 방언 학습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Ⅳ장에서는 앞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방언 교육히 필요함을 지적하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교육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제재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방언 교육의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방언 교육의 방안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학습자가 그 작품의 지역적 배경과 해당 지역방언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며,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황에 따라 방언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시어로 쓰인 어휘를 검토하여 표준어의 한계성을 보완해 주는 어휘를 발굴해내고, 드라마나 영화, 마당극,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방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방언이 표준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험하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오랫동안 방언 교육을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한정하여 교육 현장에서 외면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언 교육을 통해 문학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회·문화와도 소통할 수 있다. 즉, 문학 작품에서 쓰이는 방언 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방언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봉・곽충구・박영래(2007), 「문학 작품 속의 방언(2)」, 『방언학』 제6호, 방언학회.

강희숙(2010), 「통신언어의 수용과 확산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564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발표 논문 요약집』, 한글학회.

곽현주(2007),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방언 교육 제재 양상 연구 - 1~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현옥(2000), 『국어방언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구현정・전영옥(2005), 『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김대현(1999), 「교육과정 지역화의 과제와 전망」,『교사교육연구』 제37집, 부산대학교.

김봉국(2009), 「지역방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김수업(2001),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3집, 국어교육학회.

김아정(2003), 「지역문학작품을 통한 국어교육 - 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에스더(2007), 「방언시 교육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배(2002), 「백석시의 방언에 대하여」, 『문학과 방언 』, 역락.

김종서 외(199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김주선(2001), 「국어교육으로서 방언교육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영(2001), 「지역문학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3집, 국어교육학회.

김혜숙(2009), 「사회방언과 국어교육」,『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김혜영(2009), 「방언과 현대문학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김흥수(2002),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문학과 방언 』, 역락.

나찬연(2006), 『학교 문법의 이해 - 언어와 국어』, 제이앤씨.

류수열(2009), 「고전문학의 사회・문화적 소통과 방언의 행방」,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박갑수(1999), 「새 천년과 우리 言語文化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9집, 국어교육학회.

박관수(2008),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민요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신희삼(2002), 「방언 영역의 교재 구성에 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제14집, 국어교육학회.
양명희(2007),「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화」, 『사회언어학』 제15권 1호, 사회언어학회.
오창명(2004), 「方言과 국어교육」, 『백록어문』 제18・19집, 백록어문학회.
왕문용(2007), 「문학 교과서 소설 속 여성화자의 상대높임법」, 『한국어교육학』 제122호, 한국어교육학회.
윤천탁(2003), 「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 『청람어문교육』 제27집, 청람어문학회.
이경업(2001),「지역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3집, 국어교육학회.
이기갑(2009), 「국어교육과 방언」,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이기문, 이상규 외(2001), 『문학과 방언』, 역락.
이병찬(2009), 「고전소설 교육의 전제와 실제 - 구운몽과 춘향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이상규(2001), 「문학방언(Literary Dialect) 연구의 가능성과 그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30집, 한민족어문학회.
이익섭(2004), 『사회언어학』, 민음사.
이태영(2004),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기능」, 『어문총론』 제4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이태영(2004), 「문학 작품과 방언 연구」, 『한국어학』 제25호, 한국어학회.
임영철 외(1993), 『사회언어학의 전개』, 시사일본어사.
임칠성(2001), 「지역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3집, 국어교육학회.
장창영(2004), 「시 교육에서 방언 사용의 함의」,『국어국문학』 제138권, 국어국문학회.
장창영(2005), 『방언과 시교육 방법론』, 역락.
정길남(2003), 『국어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조규태(2003), 「표준어 교육과 지역 언어 교육」, 『한글』 제262호, 한글학회.
조미숙(2007), 「교육과정과 교과서 게재소설 변천 연구」,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최전승 외(1999),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최희선(2006), 「방언 교육의 이해와 실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언어문화 편찬위원회(2003), 『한국의 언어문화』, 경북대학교 출판부.

교육부(1998), 『고등학교 국어(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교육부(1998), 『고등학교 국어(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저(2008), 『중학교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 저(2008),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 저(2008), 『중학교 국어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 저(2008), 『중학교 국어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 저(2008), 『중학교 국어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 저(2008), 『중학교 국어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교육부(1998),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2008),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2001),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0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방언 : http://124.137.201.223/section/region_list.jsp

부록 1 - <국어교육으로서의 방언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국어교육으로서의 방언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이 설문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 국어교육으로서 문학 방언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지에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그리고 문학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학교 교육에서의 방언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설문은 시험이 아니므로 오답이나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항과 관련된 언어적 사실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이 연구 결과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일시 2010. 10. 7 - 2010. 10. 22.

1. 방언에는 그 지방만이 가진 독특한 맛과 개성이 있다고 합니다. ☐ 안에 있는 방언의 특성과 어울리는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목일, '사투리', 중3-1 2단원 <생각 넓히기> 인용.)

1-1

어딘지 무뚝뚝한 구석이 있으나, 속이 깊고 믿음직스러운 데가 있다. 되도록 말을 줄이고 발음도 간편하게 한다.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도 (4) 전라도 (5) 충청도 (6) 제주도 (7) 기타

1-2

친근하고 나긋나긋하다. 감칠맛이 있고 아기자기하다. 여인의 허리처럼 날렵하고 부드럽다.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도 (4) 전라도 (5) 충청도 (6) 제주도 (7) 기타 :

1-3

느릿느릿하고 유연하다. 서두르지 않고 단정하다. 말씨에서부터 점잖은 인상을 받는다. 또한 편안하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준다.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도 (4) 전라도 (5) 충청도 (6) 제주도 (7) 기타 :

2.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하근찬, '흰 종이 수염', 중1-2 6단원 소단원(1) 인용.)

동길 : "히야, 용돌이 짜식 벌써 멱감고 있대이. 학교는 그만두고 짜식 참 좋겠다." 용돌 : "동길아! 인마, 니 핵교는 안 가고, 히히히……." 동길 : "갔다 왔다, 짜식아." 용돌 : "무슨 놈의 핵교를 그렇게 빨리 갔다 오노?" 동길 : "돈 안 가져왔다고 안 쫓아 내나."

2-1.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도 (4) 전라도 (5) 충청도 (6) 제주도 (7) 기타

2-2. 동길이와 용돌이가 같은 단어인 '학교'를 달리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2-3. '학교'가 '핵교'가 되는 현상은 국어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었는지 적어 주십시오.

3.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김용택,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중2-2 1단원 소단원(2) 인용.)

"창우야, 이리 와. 창우야, 나는 니가 보고 싶었는디,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데?"

3-1. 위의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도 (4) 전라도 (5) 충청도 (6) 제주도 (7) 기타

3-2. 어떤 부분에서 해당 지역방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 안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3-3. 대화 속에서 방언을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4.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이범선, '오발탄', 중3-1 6단원 <보충·심화> 인용.)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 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요?" "안 쓰는 것은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야요." (중략) 그래도 아내의 살눈썹만은 전처럼 까맣고 길었다.

4-1. 위의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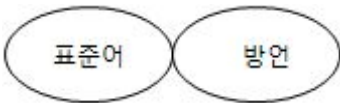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도 (4) 전라도 (5) 충청도 (6) 제주도 (7) 기타

4-2. 어떤 부분에서 해당 지역방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 안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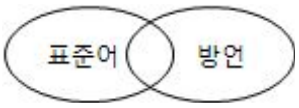
4-3. 문학 작품에서 '속눈썹'이 아닌 '살눈썹'을 씀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5. 다음은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표준어와 방언의 적절한 관계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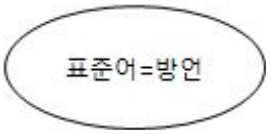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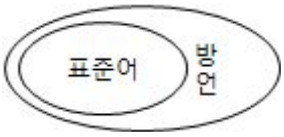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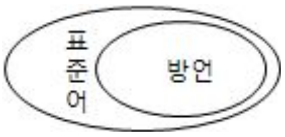
(3)



(4)



(5)



6. 국어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교재나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방언에 대한 학습을 한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1) 네 (2) 아니오

7.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주십시오.

우리 엄마는 동생에게 '맘마, 먹어'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밥 먹어', 할아버지께는 '진지 드세요'라고 해요.

7-1. 위의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어떤 방언과 관련되었을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지역방언 (2) 사회방언 (3) 방언과 관련 없다.

7-2. 위와 같은 방언의 발생 요인은 어떤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지역 (2) 성별 (3) 계층 (4) 연령 (5) 장소 (6) 기타

8. 다음 (　　)는 시에서 쓰이는 방언형 시어와, 표준어입니다. 둘 중 시어로 적합할 것 같은 단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영랑 : (새악시, 새색시) 볼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양정자 : (어둑어둑한, 어둑신한) 교정 한 구석이

김소월 : 가시는 걸음 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 밟고, 지르 밟고) 가시옵소서.

박두진 : (앳되고, 앳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박재삼 : 울(엄매,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중략)
울 (엄매, 엄마)야 울 (엄매, 엄마),

9. 국어시간에 소설의 대화나 시어에서 방언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학습하였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1) 각주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였다.
(2) 어떤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방언인지 배웠다.
(3)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방언인지 배웠다.
(4) 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현장감, 향토성, 리얼리즘 등)에 대해 배웠다.
(5) 음운론적 현상이나 문법과 관련하여 배웠다.
(6) 방언을 표준어형로 바꿔 보았다.
(7) 기타 :

10. 이 질문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함.

3학년 1학기 2단원에 수록된 '표준어와 방언' 글을 통해, 방언에 대한 인식이 글을 배우기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1)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2)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3) 아무 변화 없다.　　(4) 기타

11. 표준어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어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3) 동의한다.
(4)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동의하지 않는다.
(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 '멍게(우렁쉥이), 애순(어린순)'처럼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제23항, 제24항)는 표준어 규정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 방언형 어휘를 검토하여 복수표준어나 표준어로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13. 다음에 대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2) 학교 : _____중학교, (2학년 , 3학년)

- 감사합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8803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조현자 한문 : 영문 : Jo Hyeonja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401-23				
연락처	E-MAIL : onlymoonflower@nate.com				
논문제목	한글 :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 연구 영어 : A Study on Dialect Education Method Employing Literary Tex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

2011년 1월 일

저작자: 조 현 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